



등록번호 라36627기984, 7. 12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 성우빌딩 1202호 홈페이지www.kcoct.or.kr 전화 02)704-2311~3 팩스 02)704-2377 발행·편집인 권용태 편집위원 곽효환 대신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정호(진도문화원장), 김중(광주 서구문화원장), 박영수(청주문화원장) 편집주간 채강희 편집팀장 문선희 편집·디자인·인쇄 (주)장안인쇄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4가 300-2 전화 02)2267-7642~3 팩스 02)2274-8332

우리문화

2007 3 | 4
MARCH | APRIL

통권 187호

Contents

- 02 칼럼 무형문화유산 제도의 빛과 그림자
- 07 특집 우리의 전통 부엌
 - 08 • 우리의 옛 부엌 들여다보기
 - 12 • 부엌에 사는 신
 - 16 • 집의 자궁 '부엌'
 - 20 • 따뜻했던 우리의 부엌
 - 24 • 떡·부엌 살림 박물관
- 28 함께 읽는 시 봄의 잠적
- 30 진단 우수문화원 사례발표
 - 함안문화원
 - 서산문화원
- 34 기획 우리문화 이야기
 - 35 • 문학) 우공의 끈기가 삶을 바꾼다.
 - 38 • 무용) 조선 후기 순조시대 정재와 한국인의 끈기
 - 42 • 미술) 미디어시대의 관조와 끈기
 - 46 • 음악) 전통음악의 끈기, 그 느낌의 미학
- 50 함께 읽는 수필 서로 칭찬하며 삼시다
- 52 섬에 머무르다 외롭고 적막하지만 비경으로 가득한 섬, 두미도
- 59 연재 국유형 사유촌
- 65 문화원 탐방 인천시 연수문화원
- 71 신간소개
- 76 연합회 레이더 자료실 개관
- 78 연합회 레이더 제 15차 전국 문화원 사무국장 연수
- 80 문화원소식
- 84 문화원 원장동정

원고는 우편이나 팩스,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자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편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정가 3,000원

무형문화유산 제도의 빛과 그림자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



우리의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문화재란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종목인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의 5종목과 기능종목인 공예기술, 음식을 포함하여 총 7종목의 무형문화재이다. 현재 전승자 수는 3,000명이 안되며 전수자를 포함해도 5,000명이 안될 것이다.

‘전승자’의 의미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들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이름이며,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체계는 보유자(保有者), 전수교육조교(傳授教育助教), 이수자(履修者), 전수자(傳受者)로 4단계의 지위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작은 수의 노력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실제로 이어간다고 생각하면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것이라곤 보유자에게 월 100만 원 정도의 전승지원비와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지원금이 전부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승비가 있고 없고를 떠나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고비를 남겨놓고 있는 위중한 환자보다 더 위급한 상황에서도 생명줄을 놓지 않고 전통을 계승하고 천직으로 알고 있는 많은 장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근대화 과정에서 친환경적이고 자연과 한 모습으로 조화롭게 살

아가며 터득했던 생태문화를 불편하고 초라하며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거나 심지어 훼손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해버렸다.

그 결과 전통적인 생활도구들은 겨우 박물관에 가야만 확인할 수 있고, 전통 예술은 현대 예술에 밀려 특수한 장소에서만 관람이 가능하다. 더 무서운 것은 최근 무분별한 인류의 신문명에 의해 파괴되었던 생태환경으로부터 다가오는 재앙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새롭게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생태 환경적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물론 공예품이나 공연에서의 예술적 가치를 무시하지는 것은 아니다. 높은 장인 정신과 예술적 가치를 떠나 우리의 전통문화는 자연을 닮고, 욕심을 내지 않고, 주변과 조화하는 즉 앞으로 인류가 지향해야할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한다.

문제는 이러한 전통문화가 날이 갈수록 단절되고 있으며, 배우려는 사람도 줄고 있다. 일부 특정분야는 돈이 넘쳐서 배우려는 사람도 늘고, 오히려 지나친 모습이 거슬리기도 하지만 공예분야는 대가 끊어질 위험이 많은 분야가 수도룩하다는 것이다.

무형문화재가 걸어온 길의 자취

이런 지경까지 오게된 것은 누구 책임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냉정하게 반성해볼 대목이 있다. 우리들 스스로가 빠른 것, 편리한 것, 대량생산물 등에 길들여져서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삶을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즉 우리들 생활 속에서 목을 갈고 붓으로 글자를 써보거나, 한지로 선물을 포장하거나 도배를 하거나 생활 속에서 활용해보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다. 생활 속의 실천은 수요를 창출하고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공급이 된다. 이렇다면 자연스러운 순

환구조가 생성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필자는 잘 알고 있다. 만들 재료가 부족하거나 비싸고, 손으로 하는 작업이다 보니 가격이 비싸고, 전시장이나 판매장이 전무하다시피 하니 판로도 없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되풀이다.

정부는 이런 곳에 개입을 해야 한다. 남이 다하는 일에 생색을 내는 곳에 정부의 정책이 개입된다면 그야말로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국가가 재료를 구입해서 전승자나 배우려는 사람에게 보급하고, 완성된 제품은 구입을 해주고 판매장을 통해 일반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급하는 창작지원금이 현대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지원되어서는 전통문화의 발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또한 창작지원금이 공연분야에 한정되어서도 곤란하다. 판매장이나 전수회관의 문제도 그렇다. 강남 구석에 있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전통문화전수관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도대체 시민의 접근이 어렵다.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공연을 하고 공예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인사동에 있는 전시장도 구석에 박혀있기는 마찬가지다. 외국에 나갈 때 여러 업무로 지인들에게 선물을 할 때 우리 전통예술품을 선물할 때 그들 가장 기뻐하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인천공항에는 우리 것이라고는 지하 3층 구석에 있는 몇 개의 상점뿐이고 그나마 면세점 안에는 보이지도 않는다.

생활 속에 녹아들어야 할 우리의 전통문화, 그 앞날

전통문화의 계승은 생활 속에서 녹아 있어야 한다. 박제되어 접근하기 어려운 전통문화는 더 이상 수명이 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에게만 이 책임을 다 넘겨야 하는가. 전통문화를 실제 현장에서 계승하고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반성할 점은 분명히 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멋이 있어 달라는 것이며 소탐대실하지 말아야 한다. 즉 전승지원금 평생 보장, 후계자 선정에서의 직접 관여 요구 등은 권력이 되어서 남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또한 인기분야인 대목장과 목조각장, 단청 등의 공예분야와 판소리, 민요, 무용 개인종목 외에 궁중음식과 민속주 등 음식관련 일부 분야는 전통문화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일도 없고, 앞으로도 가치 상실이 예상되기도 않기 때문에 문화재에서 지정 해지가 되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라는 이력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일부 분야의 전승자는 지원금 확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 지정에 의한 막대한 혜택을 입은 만큼 이제는 여건이 좋지 않은 다른 무형문화유산 전승을 위해 나누어 주는 아름다움을 발휘할 때이다.

그리고 박제화된 원형유지와 시대감각에 어울리는 창작활동 및 창작물에 대한 고정관념도 벗어나야 한다. 전통이란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 재창조되는 것이다. 물이 한 곳에 정체되어 있으면 썩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즉 원형유지와 전통문화의 활성화와 생활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문화의 미래는 '사람'

다가올 미래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사람 즉 국민'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개개의 사람(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identity! 이것이 바로 문화라는 것이다. 동시에 가장 소중하고 큰 문화공간은 '사람'이며, 아울러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진실을 알았으면 한다. 최근의 문화 공간 확보는 대형화, 즉 거창한 건물부터 신축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문화공간의 구성요건은 건물, 주제, 사람(전문 인력), 예산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거꾸로 건물에만 치중하거나 예산을 건물 치장과 유지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지역(문화거점)의 정체성을 무시한 무리한 공간 확보는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것은 '재활용'의 의미를 포함한다. 동사무소, 마을회관, 양로원, 교회, 사찰, 방과 후 학교의 교실 개방, 문화예술인이 거주하는 작업실, 의지가 있는 작은 카페, 사찰의 성보 박물관 심지어 다방까지도 활용해 보자는 것이다. 행위자와 관객이 예술의 우수성과 우월함에 나태하거나 만용을 부리지 않고 거리감 없이 직접 향유할 수 있는 작지만 귀중한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력은 문화공간이 전무한 작은 마을에 이러한 문화공간을 발굴해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 / 문화재 전문위원



부엌, 생^生의 시원 속으로

모두 잠든 새벽녘, 어머니는 아궁이에 불 살피시러 부엌으로 들어가시면 세상의 아침이 시작되었다. 자명종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일어나셨을까. 무쇠 가마솥에 밥을 안치고 장독에서 싱싱한 김치를 꺼내면 그제야 속없는 남편과 아이들이 일어난다. 찬장에서 수저를 내고 찬을 놓아 아침상을 차린다. 행여 사내들이라도 부엌에 들라치면 고추 떨어진다고 내쫓아버린다. 생(生)의 시원, 생을 연장시키는 자의 자존심. 부엌은 어머니다.



우리의 옛 부엌을 들여다보기

가깝지만 잘 몰랐던
부엌의 이모저모

부엌은 부엌살림이나 식품을 보관하고, 음식을 조리·가공하는 취사공간으로, 음식 맛을 내는 장소이자 어머니의 손맛이 배어있고, 어머니로부터 며느리나 딸로 그 맛이 이어지며 여성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우리의 삶이 되어준 부엌

부엌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 주는 공간으로써, 또한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곳이다. 그리고 부엌은 부엌살림이나 식품을 보관하고, 음식을 조리·가공하는 취사공간으로, 음식 맛을 내는 장소이자, 어머니의 손맛이 배어있고, 어머니로부터 며느리나 딸로 그 맛이 이어지며 여성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어머니의 손에서 만들어진 '한술밥'을 먹는 한식구(食口)를 만들면서 가족 등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져주는 곳이다.

전통부엌의 정겨운 풍경이라면 아궁이에 장작불을 피워 부뚜막에 건 가마솥에 밥을 짓는 풍경이다. 부엌의 일차적 기능인 '취사(炊事)'는 '불 때는 일'을 의미한다. 부엌은 살림에서 가장 중요한 불을 다루는 신성한 곳 이었다. 그래서인지 부엌의 어원이 '불 때는 곳'이란 의미에서 왔다거나, '부뚜막'을 뜻하는 말에서 왔다고 한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불'을 중요시 여겼으며, '불씨'를 대대로 꺼뜨리지 않고 잇고자 하였다. 세대를 거쳐 이어진 '불씨'로 지은 '한술밥'은 '한식구'의 의미를 더욱 크게 만들었음은 틀림없다.

부엌의 여러 이름들

한편, 부엌을 경상도나 전라도에서는 '정짓간', '정지', '정주(鼎廚)'라 하였는데, '솔이 있는 부엌'이란 뜻이다. 한국인은 집을 이사할 때나 새 살림을 낼 때 부뚜막위에 솔을 거는 것이 살림살이의 시작을 의미할 정도로 대표적 부엌살림인 '솔'의 의미는 중요하였다. 살림집을 옮길 때도 가장 먼저 떼어내고, 가장 먼저 거는 것이 솔이었다. 또 다른 지역 사투리로 부엌은 '부석', '부수께', '복'등으로도 부르며, 궁중에서는 수랏간이나 소주방, 반가에서는 반빗간이라고 불렀다. 근래에는 '음식을 만들거나 차리는 방'이란 의미의 주방(廚房)이라고 불린다.

부엌은 집안에서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 주거지에서는 '불'을 때는 공간은 집 한 가운데 있었고, 청동기시대, 초기 철기시대에 이르러서는 벽 쪽으로 두게 되었다. 방안에 부엌이 있는 셈이므로, 생활공간과 취사공간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부엌은 점차 생활공간과 분리되어 독립된 공간으로 분화되게 되는데, 황해도 안악에서 발견된 4세기 중엽 고구려 안악 3호분 벽화 등의 그림에서 부엌은 '맞배지붕에



부엌의 위치는 남향집의 경우 주로 서쪽이나 서남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밥솥에서 밥을 푸는 주걱질이 집 안쪽을 향하여 들이 푸게 되므로 '복'을 불러들인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거나, 부엌이 여성의 공간이므로 '음'을 나타내는 서쪽에 배치되는 것이 음양오행 상 맞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전통부엌의 아궁이는 취사용뿐만 아니라 난방용으로도 이용되었기 때문에 부엌은 취사공간이자 난방공간이었다. 이 때문에 전통부엌 아궁이는 방보다는 높이가 낮아야 했으며, 부엌 바닥이 마당보다 60-90cm나 낮은 흙바닥이 일반적이었다.

기와를 얹은 독채부엌'으로 집에서 독립된 형태이다. 방과 부엌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 같은 독채부엌은 '한데부엌'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한데부엌은 혼사 등 큰일을 치를 때나 난방할 필요가 없는 여름철 등에 임시부뚜막을 설치하여 음식을 만들던 부엌시설로 독립된 형태이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부엌이 대개 안주인이 거하는 안채에 위치하며 안방에 붙여서 지었다. 부엌의 위치는 남향집의 경우 주로 서쪽이나 서남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밥솥에서 밥을 푸는 주걱질이 집 안쪽을 향하여 들이 푸게 되므로 '복'을 불러들인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거나, 부엌이 여성의 공간이므로 '음'을 나타내는 서쪽에 배치되는 것이 음양오행 상 맞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부엌 가까이에는 음식의 조리가 쉽도록 우물과 장독대가 놓였으며, 지역에 따라 그 구조와 기능의 차이는 있으나, 부엌 옆에 찬방을 두기도 하였는데, 이곳에서 음식상을 차려 내거나, 음식을 저장하기도 하였다.

부엌 들여다보기

부엌에는 음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식품도 보관해야 했고, 조리용구와 식기 등의 부엌살림도 보관

해야 했다. 부엌 안에는 부뚜막, 아궁이 등의 부엌 시설과 솥, 찬장, 조리용구 등 부엌살림이 함께 놓이게 되는데, 한 쪽에는 부뚜막, 다른 쪽에는 나뭇광이나 찬광, 개수대, 찬장이 있었다. 아궁이에 불을 때기 위해서는 장작이나 나뭇가지, 벧짚 등의 땔감을 놓을 수 있는 나뭇광이 필요하였으며, 음식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식품을 저장할 수 있도록 널을 깔고 찬광으로 이용하였다.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을 담는 그릇이나, 떡살과 다식판 등 부엌살림은 예부터 중요하게 여겼기에 남에게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않았다. 부엌살림은 찬탁(饌卓)이나 살강 등에 보관하였다. 살강은 부엌 한 쪽 벽 중턱에 선반을 달아 식기류 등을 얹어놓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한편에 커다란 용기 독을 두어서 물독으로 사용하였다. 한쪽 벽면에는 굴뚝으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연기를 뺄 수 있도록 환기와 채광을 위한 빗살창이 있는데, '살창'이라고도 하였으며, 부엌과 안방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작은 문이 있기도 하였다.

부엌의 부뚜막에는 2-3개 정도의 아궁이위에 크고 작은 솥을 걸었는데, 일반적으로 대, 중, 소 크기의 3개 솥을 걸었다. 솥 중 가장 큰 솥은 물솥, 중솥은 밥솥, 작은 솥은 국솥으로 쓰여 한식 상차림에 꼭 필요한 밥을 지었으며 국을 끓였다.

부엌의 변화...전통과 현대에서

전통부엌의 아궁이는 취사용뿐만 아니라 난방용으로도 이용되었기 때문에 부엌은 취사공간이자 난방공간이었다. 이 때문에 전통부엌 아궁이는 방보다는 높이가 낮아야 했으며, 부엌 바닥이 마당보다 60-90cm나 낮은 흙바닥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뒤 주거양식이 변하면서 점차 개선되어 부엌과 방이 같은 평면을 이루도록 개량되고, 방의 난방도 별도로 하게 되면서 부엌의 난방 기능은 축소되었다.

부엌안도 입식(立式) 조리대와 개수대가 설치되고 식탁이 놓였으며, 다양한 전자제품이 부엌에 등장하여 과거에 음식을 만들고 밥을 짓거나 풀 때 국을 끓이고 뜸 때 도마질을 할 때에도 바닥에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야 만들 수 있었던 좌식부엌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편리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부엌의 편리한 기능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실내장식 등 디자인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으며, 생활양식과 여성들의 의식 변화로 편리하고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는 등, 부엌 변화의 방향을 주도하고 있기까지 하여, 여성들의 삶도 변화시키고 있다.

사라져가는 풍경들

부엌이 오늘날에 이르러 이처럼 편리하고 아름다우며 문화적으로 변모하였지만, 이렇게 편리하고 문화적인 현대적인 주방에서 더 이상 전통음식을 만들지 않게 되었다. 전통음식을 만들 때 이용되었던 식생활 용구들, 떡메와 안반, 절구, 떡살과 다식판, 국수분들, 맷돌과 풀메, 밀판과 흥두께, 시루, 용수, 화독 등이나, 함지박과 이남박, 자배기, 소래기, 보시기 등 음식을 담는 그릇들 그리고 물동이를 이던 파리, 맷방석, 메주틀, 시루밑 등 전통 부엌에서 흔히 사용했던 부엌살림들이 우리네 부엌에서 사라지고 있다. 사라져가는 우리네 부엌 풍경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장작불을 피워 가마솥에 밥을 짓는 모습이나, 흙 부뚜막과 흙바닥 등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대대로 이어지는 손맛도 흐려져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



정현미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 고려대 교수



부엌에 사는 신
우리 부엌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주방 식탁에
둥글게
모여앉아
식사를
할 때마다,
해태 상을
본다.
해태 상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

세월을 지닌 골동가게의 해태 형견

언제부턴가 골동가게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버릇이 내게 생겼다. 지방 출장길에 국도를 달리다가 골동가게가 눈에 띄면, 차를 돌려 멈춘다. 진귀한 그 무엇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가 아니다. 낡았지만, 세월을 건너온 물건들의 향기를 맡기 위해서다. 그러다 간혹 지갑을 털리기도 한다. 최근에 내가 구입한 것으로, 상상 동물인 해태가 수놓아진 형견이 있다. 중국 감숙성을 여행하던 중이었다. 오래된 사원이 있는 동네의 골동가게를 기웃거리다가 한눈에 반한 물건이었다. 가게 주인이 서있는 계산대 뒤편의 벽면에 붙어있는 자수품이었다. 잉어 같은 수염에 사자 같은 갈기, 비늘이 덮인 몸통에 총채 같은 꼬리를 지닌 해태가 흰 이빨 붉은 혀를 내보이며 포효하는 모습이었다. 그 소리에 산산이 부서지길라도 하듯, 연꽃과 태양과 산과 구름과 물고기와 정자와 파도가 둥글게 해태의 몸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중국 물건치고는 후한 흥정을 하고, 물건 값보다 더 비싼 값으로 인사동에서 액자를 하고 나서, 집안 어디에 해태 상을 걸어둘까 궁리하다가 현관 신발장 앞에 걸어두었다. 내 심 집안 수호신으로 삼을 요량이었



다. 그런데 이런 자초지종 얘기를 들던 한 민속학도가 해태는 불을 먹기 때문에, 부엌에 두어야 어울린다고 했다. 집안을 지키는 성주신에서 부엌신으로 하향 조정되는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요사이의 아파트 주방에서도 불이 나서 집안을 홀라당 태우는 일도 벌어지니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주방의 짜임새를 만들어준 해태

주방 식탁에 둥글게 모여앉아 식사를 할 때마다, 해태 상을 본다. 해태 상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 해태가 집안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 때문도, 새로운 믿음 대상을 찾았다는 즐거움 때문도 아니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은 식탁을 ‘그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내 마음은 관중이 가득 찬 축구장의 축구선수처럼 설렌다. 그리고 때로 액자 속의 해태의 눈빛을 빌어 내 가족을 내려다보는 듯한 착각도 하게 된다. 하여튼 해태상이 생기고 난 뒤로 얻게 된 것은 한마디로, 주방의 ‘짜임새’였다.

부엌에 조왕신을 모셨던 내 어머니의 어머니도 그런 짜임새를 느꼈을 것이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어렵지 않게 조왕을 모시는 집들을 살필

부엌에
머무는
조왕신은
마치
굴뚝을
빠져나가는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아는
신이였다.

수 있지만, 대체로 우리 할머니들은 조왕신을 모시고 살았다. 부뚜막신, 조왕각시, 조왕할망, 조왕대감이라고도 부르는 이 부엌신은 숭배의 대상이 되는 절대자는 아니었다.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부엌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밥 짓고 에 돌보는 일이 잘 되도록 지켜주는 수호신이였다.

하지만 조왕신은 부엌일을 하는 여자들이 항상 의지만 하는, 그래서 반드시 지켜주기만 하는 수호신은 아니었다. 부엌에 머무는 조왕신은 마치 굴뚝을 빠져나가는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아는 신이였다. 집안에 머무는 여러 신들, 집안의 주장되는 신인 성주신, 안방에 모시는 삼신이나 조상신, 집터의 터주신, 대문간의 대문신, 변소의 축신들이 있지만, 하늘과 직접 내통하는 일은 조왕신의 몫이였다.

조왕신은 해마다 음력 12월 23일에 하늘로 올라가 한 해 동안 한 집안에서 벌어난 일을 옥황상제께 보고한다. 모든 집안의 부엌신이 일제히 하늘로 올라가니, 하늘길이 무척 붐볐을 것이다. 조왕신은 집안일을 낱알이 보고한 뒤에 설날 새벽에 다시 부엌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이런 일정을 아는 여자들은, 게다가

가 한 해 동안 좋지 않은 일에 손을 댄 여자들은, 조왕이 하늘로 올라가는 날에 맞춰 아궁이에 끈적끈적한 엿을 발라둔다. 아궁이는 조왕이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엿을 발라두면 조왕이 하늘로 못 올라가거나, 올라가더라도 입술이 붙어서 말을 못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조왕의 임무이자, 일 년에 한번 있는 하늘 휴가를 봉쇄하기 위한 작전인데, 이쯤 되면 조왕은 수호신이라기 보다는 감시자의 굴레를 뒤집어쓰게 된다.

조왕신이 머물다간 우리의 부엌

부엌의 감시자이자 수호신인 조왕의 존재가 우리의 부엌공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물음의 대답은 어렵지 않게 추정해볼 수 있다. 금남(禁男)의 공간이었지만, 여자들은 부엌에서 조신(操身)하게 행동해야 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술한 금기(禁忌)도 생겨났다. 부엌에서 욕을 해서 안 되고, 부뚜막에 걸터앉아도 안 되고, 함부로 아궁이 흙일을 해서도 안 되고, 악취를 내서도 안 된다. 일본 오키나와 지방에서는 부엌에서 침을 뱉어서도 안 되고, 부정한 나무를 태워서도 안 되고, 발을 벌리고 불을 지펴서도 안 된다. 중국의 '경

나라마다
조왕의
상징물
즉
신체(神體)가
다른데,
우리는
흔히
부뚜막
벽 중간쯤에
작은
사발을 엮고
매일 정화수를
담아두는
형태를
취한다.

조전서' 라는 책에는 30가지의 금기가 적혀있는데, 부뚜막에 칼을 놓아서도 안 되고, 부뚜막을 쳐서도 안 되고, 아궁이에 글이 쓰인 종이를 태워서도 안 되고, 웃어서도 안 되고 웃을 벗어서도 안 된다고 한다.

한중일의 조왕신에 대한 이런 신앙은, 중국의 도교에서 비롯되었다. 도교의 영향을 받아 기원전 2세기경에 조왕신이 이미 중국에 존재했는데, 전파 과정에서 그리고 토착 문화와 결합하면서 약간씩 다른 면모를 지니게 되었다.

나라마다 조왕의 상징물 즉 신체(神體)가 다른데, 우리는 흔히 부뚜막 벽 중간쯤에 작은 사발을 엮고 매일 정화수를 담아두는 형태를 취한다.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부뚜막벽에 작은 돌 세 개를 놓거나 작은 향로를 놓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부엌 벽에 조왕의 그림을 걸거나 상징하는 글자를 새겨놓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조왕신을 두고 이웃 나라와 비교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에, 아파트 생활자가 전 국민의 절반이 넘어서면서, 부엌조차 주방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되고, 아궁이는 가스레인지와 싱크대에 자리를 내준 지 오래다. 그러니 부뚜막 신이라고도 불리는 조왕신이 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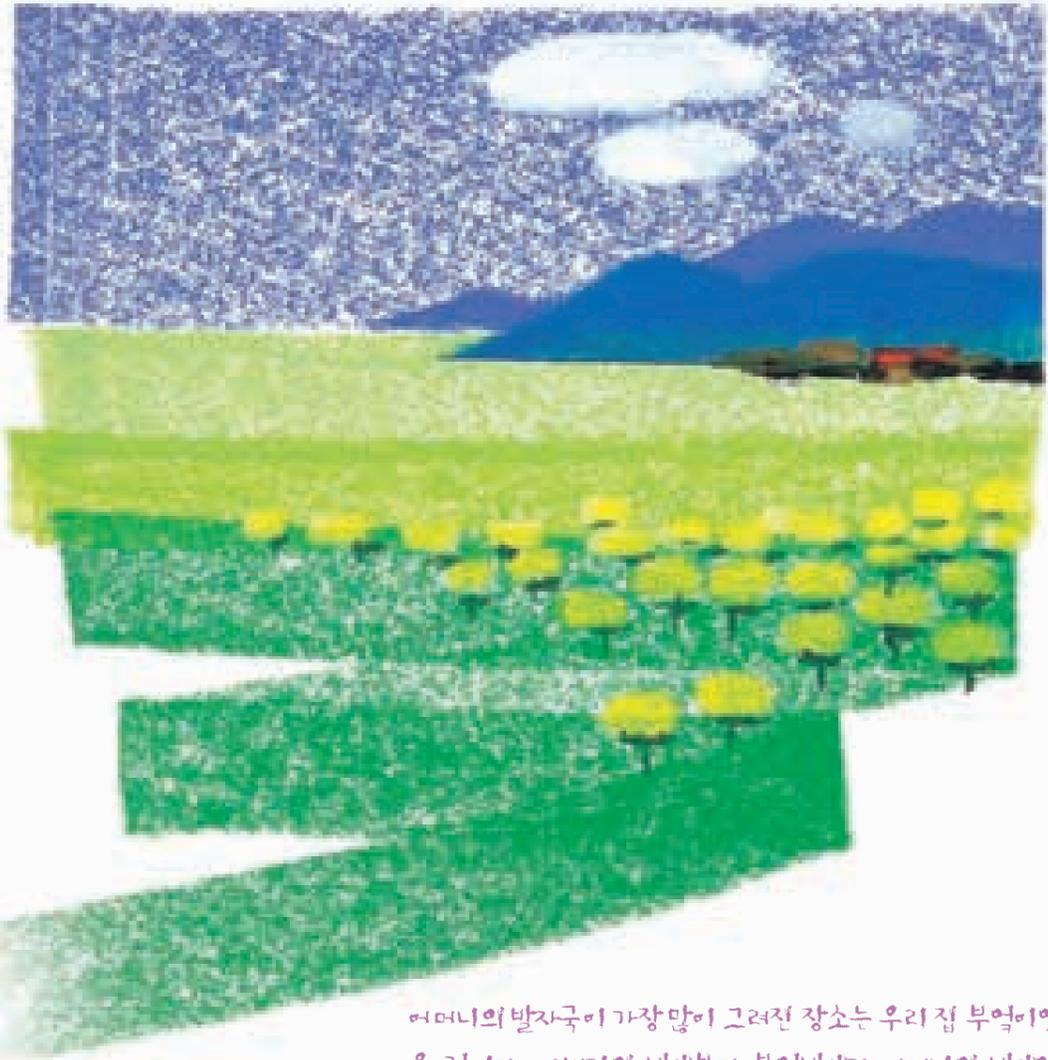
공간이 급속하게 줄어들어버린 셈이다.

쪼그려 앉아야 하고 물도 없고 어두운 부엌이, 거실과 통하고 환한 조명 아래 허리를 편 채 작업할 수 있는 편리한 공간으로 변해가는 것이야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육체에 팔린 영혼처럼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던, 부엌의 수호신이자 감시자 조왕을 잃어가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안방 위에 안방이, 주방 위에 주방이 상자 감처럼 포개진 아파트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집집마다 당호(堂號)라 할 수 있는 이름 하나씩 가질 것이며, 성주신이든 부엌신이든 집안을 지켜 줄 현대화된 가신(家神) 하나씩 전통 문화로부터 모셔오면 어떨까 싶다. 이 글을 쓰기 전까지 미처 품지는 못했지만, 우연히 이국땅 골동가게에서 형겅에 새겨진 해태 상을 가져와 내 사는 아파트 주방 벽에 걸어둔 것이, 괜찮았다는 생각이 든다. ☺



허시명 여행작가 / 중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 전공

집의 자궁, '부엌'



어머니의 발자국이 가장 많이 그려진 장소는 우리 집 부엌이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냄새보다 부엌냄새가 어머니의 냄새였을, 아니 어머니와 부엌의 냄새를 우리로선 도저히 구별할 수 없었던 그 밥의 향기,

어머니의 손길이 아로새겨진 공간, 부엌

어머니의 발자국이 가장 많이 그려진 장소는 우리 집 부엌이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냄새보다 부엌냄새가 어머니의 냄새였을, 아니 어머니와 부엌의 냄새를 우리로선 도저히 구별할 수 없었던 그 밥의 향기, 그 물의 향기, 그 땅의 향기, 그 목숨의 향기는 어머니와 부엌이 섞여진 향기였다는 것을 나는 즐겁게 기억하고 있다.

부엌이 어머니였고 어머니가 부엌이었던 시절 우리들의 젖줄이 솟고 있는 그 부엌을 나는 우리 집 구조에서 가장 후지고 가리고 싶은 누추한 곳이었다는 기억도 잊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시절 어머니에겐 부엌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왕국이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공간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부엌이었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뒷자리를 지키는 오직 하나의 장소 그곳, 부엌.

물론 아버지가 부엌이라는 공간에 발을 놓은 적을 기억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지만 부엌에서만은 어머니가 첫째라는 것을 아버지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식모에게 어머니의 호령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식모가 없던 날도 어머니의 씩씩한 고음으로 이어지는 자신감의 목소리는 늘 부엌으로부터 흘러 나왔다.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생
의 지도도 부엌

어디선가 선반 위

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자라던 고향의 추억 그리고 어머니만이 가슴에 지닌 처녀시절의 불 붉은 옛 추억도 나무 선반 위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행주로 너무 닦아서 자르르 윤이 나던 그 선반은 어머니의 밖으로 튀어 나온 심장 한쪽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 우리들의 생명줄이었던 밥만이 그곳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에게만 드리는 은밀한 음식, 아들에게만 주는 심장 같은 보약도 부엌에서 이루어지고 부엌에서 생산되었다.

그 음식과 보약은 내가 보기에 연애편지 같은 것이었다. 아버지에게는 조금은 살 냄새가 나는 음식들이 대체로 밥상이 아닌 특별한 간식 상에 놓이곤 했다. 터덕 송이구이, 대추차 같은 것을 본 것 같다. 물론 그것 말고도 세상에 좋다고 믿었던 새봄 새싹들도 손수 뜯어 즙을 짜 드리기도 했다.

당신을 기다려요, 대추차같이 붉은 물이 끓고 있다고, 어머니는 터덕 송이 대추향기로 말



했는지 모른다. 아버지는 귀가 어두운 것 같았다. 내가 보기에 그토록 살가운 연애편지를 매일 받고도 아버지의 발걸음은 어머니를 빗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어머니는 더 부엌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 곡진하게 양념을 만들고 절실하게 파를 썰었다. 그것은 차라리 기도였다고 나는 생각한 적이 많았다.

아들에게도 그랬다. 널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존심이다. 딸이 여섯이나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어쩌면 어머니의 목숨이기도 했을 것이다.

아내의 자리를 그나마 지키는 보루가 그 아들이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어머니는 혼자 걸었지만 아들을 늘 업고 있었으며 늘 가슴에 박고 살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에게 답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들도 아버지 못지않았다. 어머니는 영원히 답장이 없는 연애편지를 생을 다해서 아들에게 썼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 아들이 다른 여자를 사랑했을 때 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을 것 같은 절망을 나는 순간 보았다. 며느리에 대한 질투도

애첩보다 적지 않다는 것을 나는 일찍이 알았다. 그런 외로움과 갈등을 참고 견디는 곳이 부엌이었다.

은밀하고도 아름다운 어머니의 자리

부엌은 또 다른 어머니의 공간이었다. 저녁 나절 어둠이 마당에 부드럽게 쌓이면 어머니는 저녁을 다 먹었는데도 부엌에서 무엇인가 덜컹 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물을 끓이고 있는 듯 보였다. 왜? 나는 뭔가 비밀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안으로 문을 걸어 잠가 버리는 것을 보면 나 같은 어린아이도 잘 알 수 있다. 나는 어머니만 있는 그 부엌이 너무 궁금했다.

어느 날이었지, 봄이었던 것 같다. 진달래 개나리를 거쳐 만발한 벚꽃이 온 동네를 대채 없이 밝혀 여자 마음을 있는 대로 공중으로 끌어 올리는 그런 봄밤, 나는 물을 찾는 이유로 부엌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어머니가 공중으로 펄쩍 뛰어 올랐다

“아이구, 놀래라 인기척이라도 해야지 저 년이...”

어머니가 그렇게 놀라며 난색을 표하는 것

을 처음 보았다. 잠깐 보았지만 어머니는 엉덩이를 다 드러내고 대야에 물을 아래로 놓고 한쪽 엉덩이를 들어 올린 채 아래를 씻고 있는 듯 보였다. 무슨 절박한 제를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 홀로 엄숙한 몸의 기도를 올리는 것 같기도 했다. 이상한 것은 아래를 씻고 있는데 그 모습이 아주 거룩했다는 것이다. 그 아름다운 공간 부엌, 그곳은 어머니의 잠자리를 가기 전 뒷물을 하는 곳이기도 했던 곳이다.

그렇다. 그곳은 성스러운 곳이기도 했던 것이다. 아, 아름답고 황홀했던 어머니의 뒷물하는 모습은 지금도 아찔하게 나를 긴장시킨다.

어머니의 음부가 살아나는 곳, 그 잉태 전의 몸을 준비하는 곳이 여자의 부엌이었다니 50년대 그 시절 지금 생각하면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 채색식 부엌이 어머니의 자궁 속같이 신비로운 곳이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부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선반이었다. 때때로 심하게 모든 것들이 얼어 붙는 날 선반위에선 언 그릇들이 미끄러져 깨어지는 날이 있었다. 어머니는 못 입을 옷들을 챙겨 미끄러지지 않게 선반을 싸주었다. 마치 자기인생을 미끄러지지 않게 붙잡아 두듯이 말이다. 밥그릇만 봐도 아버지의 밥그릇, 아들 밥그릇은 알 수 있다. 그것은 천지개벽이 와도

바뀌지 않는 것이었다. 어머니에게 철칙 중에 철칙이었다. 어쩌다가 아버지나 이들의 밥그릇으로 물을 떠먹으면 혼이 나고 그 그릇을 무슨 전염병 환자가 만진 것처럼 두어 번 징그럽게 닦아 내곤 하셨다. 그것은 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자신의 철칙위반을 저지르지 않는 비장한 사랑이었다. 아니 그것은 어머니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만드는 처절한 행위 그 것이었다.

부엌의 찬장 속엔 반찬만 들어 있었던 게 아니었다. 가장 높은 찬장 선반 위에는 우리 손이 닿지 않는 종이에 쌓여진 그 무엇이 있었다. 언젠가 어머니 장롱 속에서 보았던 물건인 그것은 자주 자리이동을 하면서 어머니만 아는 공간으로 옮겨 다녔다.

그렇다. 생이 확 이그러지면 궁핍하게는 살지 않고 스스로 죽을 수 있다는 자신이 만든 비극적 희망이었다. 삼키면 죽는다는 비상이라는 것.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듯 단호하고 자기가 확실한 어전한 여자였는지도 몰랐다. ☺



신달자 시인 / 수필가



따뜻했던
우리들의
부엌

옛 도구의 소박함이 가득한
부엌 속으로

물기가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으면
금방 벌겋게
녹슬어버리는 무쇠솥
할머니께서는
귀여운 손주를 어루만지듯
그 무쇠솥을 마른 행주로
정성껏 닦아가며
아끼셨다



부엌에 있었던 옛 도구들

우리의 전통부엌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부뚜막, 아궁이, 무쇠솥,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 부엌에 어찌 솥과 아궁이만 있으랴 만든 접시나 수저나 소반이니 하는 다른 어떤 부엌살림보다 부뚜막, 아궁이, 무쇠솥 등은 왠지 더 정겹다.

돌아가신지 벌써 한참 되신 우리 외할머니가 그리워질 때마다, 큼직한 할머니의 무쇠솥이 함께 생각난다. 내가 초등학교 다니던 무렵, 이미 며느리를 보셔서, 살림에서 손을 떼셨던 우리 외할머니께서는 유독 무쇠솥만큼은 손수 관리하셨다.

벌써 30,40년 전이었지만 서울 살림인지라 아궁이에 장작을 지피는 대신 연탄불을 썼고, 무쇠솥은 거의 쓰지 않았었다. 그래도 할머니 댁 부엌에는 여전히 부뚜막이 있었고, 거기에는 한번 밥을 지었다 하면 수십 명이라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큼직한 무쇠솥이 걸려있었다. 물기가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으면 금방 벌겋게 녹슬어버리는 무쇠솥. 할머니께서는 귀여운 손주를 어루만지듯 그 무쇠솥을 마른 행주로 정성껏 닦아가며 아끼셨다. 할머니

의 손길이 닿은 탓인지 그 무쇠솥은 자주 쓰지 않아도 늘 반질반질 길이 잘든 상태로,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찬바람이 불고 무가 맛있어지는 계절이 되면 할머니는 무쇠솥에 물을 부어 잘 닦은 후 바가지로 그 물을 퍼내고 말리는 등 무쇠솥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곤 돼지등뼈와 무를 큼직큼직하게 썰어 넣고 매콤하게 양념해서 특별한 음식을 손수 만드셨다. 할머니의 무탕이 완성되어 그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면 할머니는 근처에 사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아 따끈한 그 무탕을 한 그릇씩 먹이셨다.

할머니의 무쇠솥은, 사랑이며 정성이었다. 비록 집안 살림의 주도권은 며느리에게 넘겨주셨지만, 일 년에 두어 번 별식을 만들어서 시집 장가 간 딸 아들, 며느리 사위, 그리고 손주들까지 별식을 먹이면서, 당신의 그 은근한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이다.

따뜻했던 아궁이 그리고 검댕 고구마의 맛

친정아버지의 고향이 시골이라고는 해도 서울에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듯한
아궁이에
장작이며 짚을 넣어서
불을 지피면
이글이글 삼킬 듯
타오르는
불구경이 너무 좋았다.

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던 터라 형제분들이 모두 일찌감치 서울로 올라오시고, 아버지와 열 살도 넘게 차이가 나는 큰고모님만 고향에 계셨다. 초등학교 시절 반 친구들이 개학하면 방학 때 시골 할머니 댁에서 놀다온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떠들어댔 때, 갈 시골집이 없는 나는 그 화제에 끼여들지 못해 풀이 죽곤 했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큰고모님 댁에서 사흘이나 놀다올 수 있게 됐다. 난생 처음 엄마와 떨어져서 시골 고모님 댁에서 자고 오게 돼 기대가 컸었는데, 시골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불편했다. 서울의 우리 집보다 추웠고, 화장실도 불편했으며, 간식거리도 별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데리러 오셨을 때 귀가하고 싶지 않았던 건 고모님 댁 부엌의 아궁이 때문이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듯한 아궁이에 장작이며 짚을 넣어서 불을 지피면 이글이글 삼킬 듯 타오르는 불구경이 너무 좋았다. 고모님의 허락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궁이 속으로 장작을 밀어 넣는 재미도 쏠쏠했다. 그런가 하면 굴뚝을 타고 온 동네로 퍼지는, 나무 타는 냄새와 부뚜막 위에 걸려 있는 가마솥에서도 솔솔 새어나오는 밥 냄새는 또 얼마나 좋은지. 밥이 다 돼서 뜸 들일 무렵이면 가마솥은 눈물을 흘렸다. 그때쯤이면 고모님은 타다

남은 숯은 화로에 넣어 방으로 들여가시고 아궁이의 잿 속에다가 고구마를 파묻어 구워주셨다. 거죽이 새까맣게 타서, 고구마 하나 까먹을라치면 손이며 입 주변이며 검댕을 잔뜩 문혀야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고 너무 맛있었다.

모처럼 놀러온 어린 친정조카에게 해먹일 것이 별로 없다고 걱정이셨던 고모님께서서는 아궁이 주변에서 떠나지 못하고 부뚜막 주변을 맴돌며 놀던 나를 대견스레 지켜보셨다. 이게 벌써 40여 년 전의 일이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길 바라는 유일의 장소, 부엌

지난 해 가을 여행한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 옆에는 반듯한 기와집들을 여러 채 옮겨놓은 선비촌이 있었다. 한 채 한 채 구조가 다른 선비촌의 집들을 재미있게 구경했다. 그중에서도 제일 오래 눈길을 붙잡은 곳은 역시 부엌이었다.

한결같이 안방 옆에는 부엌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부엌에는 불길의 안방으로 향하는 아궁이가 있었으며, 그 아궁이 위에는 큼직한 무쇠솥이 걸려있었다.

어렸을 때 본 무쇠솥은 그저 외할머니가 맛있는

따뜻한 부뚜막 주변으로
찾아드는
가족들을 넓은 품으로 보듬어 안으며,
누룽지도 굵어 먹이고,
감자도 구워 주고,
때로는 가마솥의 뚜껑을 뒤집어
부침개 부치며 사는
재미를 만끽하지 않았을까



음식을 해주던 요술냄비였고, 아궁이는 재밌게 놀던 고모님 댁의 놀이터 같은 것이었으나, 나이가 들어서 바라본 선비촌의 그것은 좀 느낌이 달랐다. 뭐랄까, 옛 여인들의 애환이 느껴졌다고나 할까?

아궁이에 불은 어떻게 지켰을까? 가스레인지의 자동점화장치만 고장 나도 불편해서 어쩔 줄 모르고 애프터서비스를 신청한다, 새 것을 산다하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 요즘 사람들인데.

장작불로 밥하기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스위치만 누르면 알아서 밥이 되고 뜸도 드는 전기압력밥솥을 쓰면서도 밥맛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고두밥을 지었다 죽밥을 지었다 하는 것이 요즘 주부인데.

물기가 조금만 남아있어도 급세 녹이 슬어버리는 저 무쇠솥은 어찌 관리했을까? 옛날 무쇠솥과 비교하자면 그 크기가 10분의 1도 안 되는 자그마한 무쇠솥도 관리가 어렵고 무거워 서 손목에 무리가 부담이 간다고 치워버리는 것이 요즘 여자들인데.

쭉그리고 일해야 하는 이 부엌에서 한 끼에도 몇 번씩 어찌 상을 차렸을까? 가재도구가 편리하게 갖춰진 현대식 주방에서도 식사준비를 해도 불편하니, 허리가 아프니, 힘이 드니 하는 것이 요즘 세대

인데.

아궁이, 부뚜막, 무쇠솥이 보일러와 가스레인지, 싱크대, 전기압력밥솥으로 대체된 요즘과 비교해볼 때, 옛 여인들은 엄청난 가사노동에 시달렸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여인들이 결코 불행했으리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따뜻한 부뚜막 주변으로 찾아드는 가족들을 넓은 품으로 보듬어 안으며, 누룽지도 굵어 먹이고, 감자도 구워 주고, 때로는 가마솥의 뚜껑을 뒤집어 부침개 부치며 사는 재미를 만끽하지 않았을까.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부족했기 때문에 더 행복했던 것이 옛날 부엌 풍경이 아니었을까.

온갖 도구와 먹을거리로 풍성한 요즘 부엌은 냉장고에서 냉수 한잔 꺼내 마시기 무섭게 돌아서서 제 방의 문을 꼭 닫고 들어가는, 대화가 부족한 가족들로 인해 그리 따뜻한 장소는 아니다. 불편했지만 재미가 가득한 따뜻했던 옛 부엌을 새삼 그려본다. ☺



김혜경
한국경제신문 기자 역임 / 82cook.com대표



떡 · 부엌살림 박물관
어머니의 아련한 숨길이 앳은 곳



① 떡 만들기 체험행사를 하는 아이들
② 떡 · 부엌살림 박물관 관장 윤숙자 선생

정겨운 우리네 살림살이

세월이 무수히 흘러 남자들도 부엌을 드나드는 시대다. 옛 부엌의 모습은 이제 쉽게 찾기 어렵게 되었다. 너무 흔한 것들은 쉽게 남지 않는다고 누군가 그랬던가. 하지만 어떤 이는 소중한 것을 구별할 줄 알기 마련. 떡 · 부엌살림 박물관 또한 그렇게 탄생했다.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창덕궁과 종묘의 이웃에 위치한 떡 · 부엌살림 박물관은 잊혀져가는 우리네 부엌살림과 떡을 모아놓은 곳이다. 10층짜리 현대식 건물에 자리 잡고 있으며 2층이 부엌살림 박물관, 3층이 떡 박물관이다.

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판매하고 있는 떡카페 질시루를 지나 2층으로 들어서면 잔잔한 조명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살림살이들이 낯선 방문객을 반긴다. 주발, 막사기, 종지, 수저 등의 식기류와

채칼 등의 조리용 도구, 호죽반, 구죽반 등의 상들이 낯설면서도 친근하다. 일상의 영역에 머물렀던 탓에 너무 쉽게 잊은 게 아니냐고 원망도 하지 않고 생글생글 투박하게 웃고 있는 것만 같다. 여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들과는 다르게 이곳에 있는 부엌살림들은 지금 바로 꺼내서 사용해도 괜찮을 것처럼 생기 있다.

각 상 위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시절(時節) 음식을 올려놓았다. 정월 초순의 떡국, 만둣국, 조랭이 떡국, 나박김치에서부터 동지의 팔죽, 동치미, 완자탕, 통김치에 이르기까지 가짓수도 다양하다. 이런 상을 언제 받아보았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전시장의 양쪽 끝에는 우리 전통 부엌을 재현해 놓았다. 가마솥을 세 개 얹은 부뚜막과 기와담 밑에 용기종기 자리를 펼친 장독대의 모습을 보니 어머니가 떠다주시던 식혜와 수정과가 생각난다.



떡·부엌살림 박물관 내부 전경



다채로운 떡의 세계

3층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보니 새 계절이 돌아 오면 어머니는 늘 시루에 떡을 찌셨다. 떡이 다 되면 시루 양쪽에 초를 밝히시고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철없던 시절이었지만 그 경건함에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있었다. 떡 박물관은 그런 옛 어머니들의 정성을 가지런히 진열해 두었다. 떡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 찐떡, 찜떡, 지진떡, 삶은떡으로 나뉘는데 이채로운 모양들이 재미있다. 뿐만 아니라 떡살, 시루, 떡매, 등 이름만 들어도 정감이 넘치는 옛 조리도구들도 떡 사이사이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윤숙자 관장이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30여 년간 꾸준히 수집해 온 것이다. 살아 오면서 사라지는 것들이 안타까워 하나둘씩 모았던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 전통 음식 연구가이기도 한 그녀는 박물관과 더불어 한국전통음식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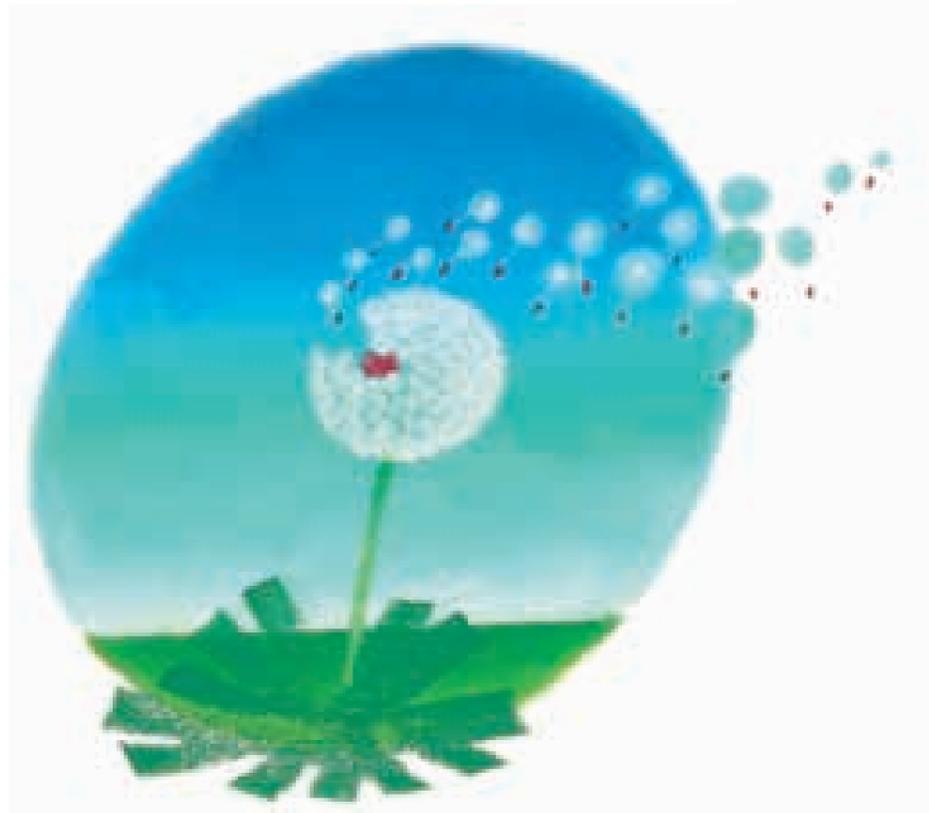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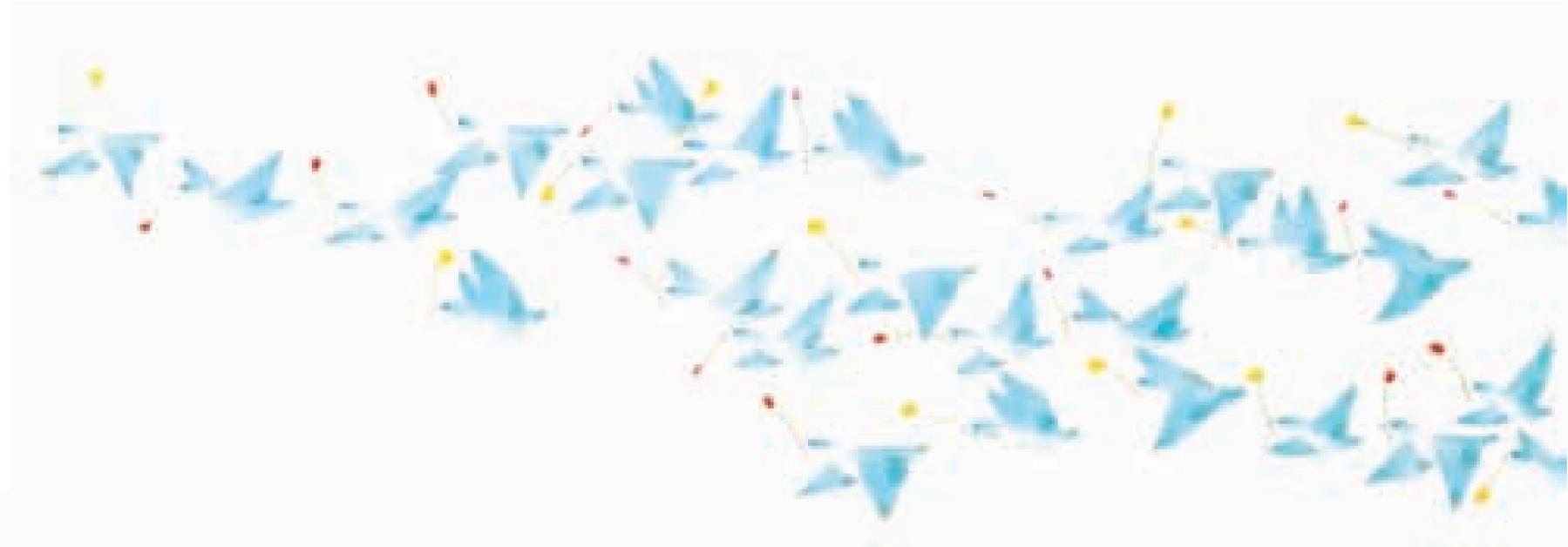
소를 함께 이끌어 오고 있다.

관람객들은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등 학생들의 단체관람이 많으며 일본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발길도 늘고 있다고 한다. 20인 이상 단체관람객들에게는 학예사가 동행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며 박물관 관람 후에는 떡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니 때 마다 배를 채워야 하는 게 우리네 삶이다. 최근에는 어떤 것을 어떻게 먹느냐가 더욱 중요해졌지만 어느 가정이나 부엌살림은 비슷하다. 옛 적에 살던 이들은 예전에 쓰던 부엌살림들이 이처럼 박물관에 전시되리라고는 꿈엔들 생각했을까. 새삼 일상 속에 묻혀가는 것들을 소중한 여기리라 생각하며 발길을 창덕궁으로 돌렸다. ☺

글·사진 | 최성덕 여행 작가

봄의 잠적



산골 한낮의 봄은
 모두 다 비워두고 어디론가 떠나고 없다
 삭은 철제 의자가 저 혼자 바람에 흔들리고
 봄별 따라 날아온 나비만이 제 짐인 양 앉아본다
 겁 없이 솟아오른 흙들의 발기 끝에는
 연두빛 제비꽃 순이 수줍게 고개 숙이고
 빛과 바람, 소리만이 가득 찬
 단단한 돌집의 마당귀
 '정기 휴일'의 땃말을 보고서도
 쉬 돌아서지 못하는 것은
 봄날 화사한 꽃의 유혹 때문
 그래,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다
 봄은 어차피 비워있는
 공복과 허기의 희망이니까
 문득 바람 끝에 묻어오는 서러운 낙화
 한 걸음 두 걸음
 향토빛 고향집 마당으로
 귀가하는 너의 발자국 소리 듣는다.



김종섭 경북 감포고등학교 교장 / 시인

함안문화원 원사 건립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원이 향토문화 자원 발굴과 보존 및 개발, 그리고 향토문화 진흥과 사회교육을 위한 자기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그에 부응하는 전문성과 적절한 기반시설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에 따라 지난 사무국장 연수에 발표된 우수 문화원의 사례를 다루기로 한다.

새 원사 건립의 배경

함안문화원은 새 원사 건립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의 향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의 중심이자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충족을 위해 새 원사 건립을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사는 1965년 5월 재일동포 이이수 씨가 대지 308평에 건평 126평의 2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서 함안 군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함안 군에 기증, 독립 원사로 지금까지 써오고 있다.

2004년 3월 함안교육장 출신의 현 조훈래 원장이 원장으로 입후보하면서 새 원사 건립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데에서 새 원사 건립은 급물살을 타기에 이르렀다. 60년대에 건축한 현 원사의 노후화로 연습실, 주차장, 특별실 등의 공간 부족 등 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다양한 문화의 향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사 신축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지역 주민의 성원과 원장님의 열정에 힘입어 2년간의 준비 끝에 금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계획이 진척되고 있다.

새 원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2004년 7월 원사 건립을 위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 경상남도의회 의장, 함안 출신 경상남도의회 의원, 함안군수, 함안군의회 의장 및 의원, 노인회 회장을 고문 또

는 자문위원으로 영입하고 지역의 건축전문가를 중심으로 '함안문화원새 원사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해 8월부터 부산 기장문화원과 충남 홍성문화원을 비롯하여 경남 도내 각 문화원을 방문하는 등 광범한 자료 수집을 전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원사 건축 지원에 따른 약속을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얻어내는 등 추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설계 공모와 예산 및 부지 확보

2005년 초 설계공모에 이어 건축사가 선정되었으며 1년 후 설계도면의 완성과 함께 이를 토대로 원장님이 함안군을 방문하여 군수님과 의 여러 차례에 걸쳐 의논 끝에 2006년도에는 분권교부금 3억 원과 지방비 7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금년도에도 분권교부금 2억 8,000만 원과 지방비 7억 2,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총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스포츠단지 내 2,646km²의 부지를 확보하고 함안군으로부터 문화시설로 형질변경을 마친 새 원사 부지는 연건평 1,520km²의 지상 2층과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함안문화예술회관과 인접하여 추후 스포츠타운이 조성됨으로써 함안의 문화와 스포츠가 공존하는 문화·스포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문화 공간 배치계획

4월 중 입찰공고, 5월 중 공사착공과 함께 5개월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10월에 준공 및 입주 예정으로 있는 문화원의 공간 배치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의 활용성과 건물 관리의 충실성을 높이면서 인근 함안문화예술회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용할 수 있게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원사를 강좌, 공연, 전시, 관리 등 네 가지 기능으로 분류하면서 1층은 강좌와 전시 공간, 사무실을 배치하고 2층은 290석 규모의 공연장을, 그리고 지하1층은 연회석을 겸한 연습 공간 및 공연자 대기실 등으로 배치하였으며 노약자나 장애우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공간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향후 관리 및 과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사업으로 수익선의 다각화와 공연장 시설 등의 대관을 통해 문화원의 자생력 신장과 재정확보의 다변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문화원이 안고 있는 운영의 열악성 때문에 창조적인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원장의 의지와 자치단체장과의 협조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추도호 함안문화원 사무국장

서산문화원의 중장기발전계획

반세기의 역사를 되새겨 보면서

1957년 6월 15일에 서산문화원이 창립되어 50년의 역사와 함께 10여 년 전부터는 15개 읍·면 단위로 분원을 설립하고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해 오면서 2001년 12월에는 대지 889평에 연건평 572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새 원사를 마련하고 1,320명의 회원(일반회원 : 718명, 특별회원 : 602명)에 17명의 임원과 6명의 직원(공익근무 1명과 공공근로 1명 포함)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예산개요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005년도 7억 9,480만원, 2006년도 3억 4,25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노인 일자리사업과 결혼이주여성사업 및 축제비용으로 6억 6,000만 원을 1차 추경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외부기관 사업 및 특수목적사업

충남의 경우 지방문화원의 재원은 향토민속발굴사업비 1,000만원, 문화활동사업비 3,8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지역문화학교 600만원, 경상비로 책정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2,500만원 내외로 해서 대략 1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각각 지원 받고 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 상에 나타난 1억 원 이상의 금액은 다른 특수목적사업비로 지원받거나 자부담금으로 구성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서산문화원의 경우 금년도 해미읍성역사체제축제예산 5억 8,000만 원을 제외하고 매년 약 3억 5,000만원 내외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1억 원을 제외한 약 2억 5,000만 원 정도의 외부기관 사업 및 특수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문광부의 생활문화활성화사업, 100대 문화상징사업, 문화예술진흥원의 박첨지놀이 해외문화교류사업,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새터민사업, 충청남도교육청의 평생교육사업,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국제결혼이주여성사

업, 노인일자리사업, 향토사료관운영사업과 24년째 매월 발간되고 있는 문화원보 '서산의 숨결' 발간사업 등이 있다.

기초자치단체와 시의회와의 관계설정

서산시는 인구 15만 명의 도농복합도시로 전형적인 지방 중소도시이다. 서해안개발과 함께 고속도로가 생기고 화학공업단지과 자동차공단이 들어서면서 농업에서 공업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문화적 측면에서도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그려내기가 쉽지 않다. 농촌과 도시가 혼재하고 전통과 현대가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어 그 심층을 파악하기가 힘든 곳이 되었다.

또한 지방문화원의 관리 주체가 문화관광부에서 광역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문화원이 기초자치단체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원이 자치단체의 눈치를 살펴면서부터 그 위상이 실추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문화원을 기초자치단체의 계선조직 정도로 보고 있는 시민들도 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문화원 가족이라면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다. 다만 임원 또는 분원장 가운데서 시의회에 진출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와의 교두보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정도이다.

서산문화원 중장기발전계획

신축 원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여 문화원의 위상 제고와 내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역문화 활동을 전개했으며 제3기는 지역문화 활동 성숙기(2005년 이후)로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구현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현재 제2차 서산문화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는 서산시의 문화 예술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계획 중에 있다. 서산시의 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은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상황으로 우리 서산문화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서산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바를 설정하고 이를 제2차 서산문화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8년 후인 2015년에는 서산시문화회관(대지 3,000평 연건평 1,200평 규모로 문화원 바로 옆에 위치함) 수탁운영(서산시는 서산시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별도의 문예회관을 신축 이전할 예정임)등 실질적인 지역문화의 전당으로 면모를 일신할 것이다.

정치가 십년지대계라면 교육은 백년지대계요 문화는 천년지대계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의 밑알을 싹틔우기 위한 거름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우리의 실적이 계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먼 훗날 우리의 후배들이 또는 자손들이 풍요로운 문화의 향수 속에 삶이 이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보람이 아닌가 생각한다. ☺



한기홍 서산문화원 사무국장



우공^{寓公}의 끈기가 삶을 바꾼다

어릴 적 우공이라는 노인이 산을 옮기려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웃음이 나왔던 기억이 있다. 자연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사람의 힘을 두고 나왔을 웃음이었을 터. 그렇지만 조금 나이를 보태고 생각해 보니 우공의 끈기를 새로 읽게 된다. 거대한 산에게 대항할 것이라고는 한 줌의 흙을 떠 올렸던 작고 초라했을 손과 끈기밖에 없었던 한 우공의 결심에 대해쳐 말이다.

끈기에 끈기를 더한 우공의 이야기

옛날 중국의 북산(北山)에 우공(寓公)이라고 불리는 한 노인이 살았다. 나이가 이미 90에 가까운 그 노인은 어느 날 자식들과 함께 둘레가 700리나 되는 태형(太行)과 왕옥(王屋)이라는 두 산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조소와 만류에 대해 “나는 늙었지만 나에게도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다. 그 손자는 또 자식을 낳아 자자손손 한없이 대를 잇겠지만 산은 더 불어나는 일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 언젠가는 평평하게 될 날이 오겠지”라고 대답하곤 산 옮기기를 계속했다. 노인의 말을 엿들은 산신령이 산을 허무는 인간의 노력을 두려워하여 옥황상제에게 만류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정작 우공의 정성에 감동한 옥황상제는 힘센 존재들에게 명하여 그 산을 옮겨주었다는 얘기가. 『열자(列子)』〈탕문편(湯問篇)〉에 등장하는 우공이산(愚公移山) 이야기는 흔히 쉽 없이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노력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한 말로 통한다.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삶의 덕목들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끈기’이다. 자본주의에 포위된 우리는 일상에서 이윤법칙에 어긋나는 가치들을 온통 삶에서 추방해 버렸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최첨단의 자본주의 사회는 끈기라는 전근대적 가치보다는 그

우리 문화 이야기 **끈기**
“**끈기**”

때그때 상황에 따라 민첩하게 몸을 움직이는 순발력과 변화의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숭배한다. 한 가지 일에 집착하는 장인정신보다는 새로운 이윤창출을 위해 언제든지 삶을 구조 조정할 수 있는 날렵한 몸을 말이다. 우리는 '이윤'이 한 가지 분야에서의 끈질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세상이 이렇다보니 오랫동안 우리가, 혹은 우리의 선조들이 중요하게 손꼽았던 '끈기'라는 가치는 어느새 미련함이나 집착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가치로 오해되곤 한다.

신화와 문학에 스민 우리 민족정신, '끈기'

흔히 신화를 가리켜 한 민족의 정신적 원형이라고 말한다. 물론 우리의 민족 신화가 근대의 초창기에 재구성된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화를 한 민족의 정신적 원형으로 간주하는 등식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 이전 사회에서 유통되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끈기'가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태도였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웅녀가 그 단적인 예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단군의 어머니인 웅녀는 원래 꿈이었으나 동굴 속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쭈과 마늘만 먹는 시련을 견디어 여자로 환생하게 된다.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간 호랑이와 달리 그녀는 끈질기게 시련을 견뎌냄으로써 자신의 소원을 성취했다. 신화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곳곳에서 전래되고 있는 망부석 설화는 그것이 비록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과 기다림을 주제로 삼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쉽사리 방향을 바꾸지 않는 끈질김의 정서가 스며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시가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시조에서는 변하지 않는 우직함과 끈기가 최고의 덕목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아래에서 두 편의 시조를 살펴보자.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는고
우리도 그치지 말아 만고상청 하리라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부분

흰 구름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푸른 산이야 모습 바꿀 때가 없지
이리저리 변하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우뚝한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라
- 안정복 「운산음(雲山吟)」 전문

이황의 연시조 「도산십이곡」 제11수와 안정복의 한시 「운산음」의 전문이다. 각각 살았던 시대는 달랐지만, 그들이 강조하는 삶의 덕목은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 삶, 끈기와 인내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근대 이전의 인간들의 이처럼 자연의 원리에 맞추어 살았다. 그러나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청산(靑山)의 푸름과 유수(流水)의 그치지 않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시인은 불변하는 자연의 가치에서 삶의 중요한 덕목, 즉 만고상청의 가르침을 얻고 있다. 안정복의 한시에서 '흰 구름'은 변함의 상징이다. 안개가 짙게 깔린 산을 상상해보자. 주변의 기후변화에 따라 구름과 안개는 무시로 흩어짐과 모임을 반복한다.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구름'을 종종 일장춘몽의 허세나 부귀영화, 그리고 간신의 상징으로 즐겨 사용했다. 반면 푸른 산(靑山)의 푸름은 이 시에서도 최고의 가치로 손꼽힌다.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세야말로 삶의 아름다운 덕목이 아닌가.

삶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다. 단순히 옛날의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다거나 아름답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하루하루가 급격하게 바뀌어 어제와 오늘이 다른 요즈음이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크게 변하지 않는 법이다. 삶의 아름다움은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 바뀌는 변화무쌍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끈기 있게 지켜나가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이다.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장인들의 삶에 대해 감격의 시선을 보내지만, 정작 그러한 태도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데는 인색하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방향을 올곧게, 끈질기게 고집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것이 성과를 거두는 순간의 감격이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법이다. 세상의 법칙에 자신의 삶을 맞추려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고집하는 태도, 그것이 과연 고집스러움이나 어리석음으로 비판 받아야 할 일일까. ☼



고봉준 문학평론가 / <작가와비평>편집동인



조선 후기 순조^{純祖} 시대 정재^{呈才}와 한국인의 끈기

민간에서 연희되었던 민속무용춤과 대응했던 궁중정재. 일반 서민에게는 높은 담 너머의 꼭꼭 숨겨놓은 이야기일 따름이었으나 그 속에 녹아있는 정신은 하나로 흥렸음이 분명하다. 인륜으로 시련이 많아 더욱 노력하고 인내하며 삶을 지켰던 소박한 정신이 녹아들어 화려한 궁중정재가 탄생한 것이 분명할 터. 인내와 끈기의 춤이었던 궁중정재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 민족의 근성, 끈기와 인내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착한 심성을 가진 민족으로써 역사 속에서 대대로 외세의 침략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더욱이 늘 내부적으로는 집정자들의 분열과 당쟁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안타까운 역사로 다가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이 지금 우리에게 남긴 찬란한 예술과 문화유산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끈기와 인내가 어떠한 지가 눈에 보이듯 짐작이 간다. 한국의 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 고대의 제천의식에서 발생한 이래로 한민족과 함께 기쁨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같이 하며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다.

왕실에 따른 국연의 변천

조선 후기 순조(純祖)시대는 특히 세도정치로 인하여 왕권이 약해진 시기였다. 순조는 정조가 승하하고 겨우 보령 11세에 왕위를 계승받았으며 이것은 외척 세력 및 안동 김씨 제도 정치의 발단이 되었다. 게다가 몸이 약하여 정사를 펴지 못하였기 때문에, 총명한 효명세자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명하였다. 효명세자는 1827년 순조를 대신하여 국사를 대리하기 시작하면서 즉시 단호한 명령을 내려 김씨 세력을 압박하여 외척 중심의



정치 질서를 개혁하고, 현재(賢才)를 등용하고, 형옥(刑獄)을 삼기는 등 민정에 힘썼다.

그 가운데 효명세자는 정치질서를 바로 잡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궁중 연향과 의례를 부흥시키고 정재를 창작하거나, 한문 창사를 창작하며 궁중 내 연행예술을 직접적으로 주도하였다. 그리하여 순조 때에는 30여 가지의 정재가 새롭게 창작되었고, 또한 이러한 정재(呈才)가 행해진 왕실의 진작(進爵)례와 진찬(進饌)례에 대한 상세한 기록도 아울러 기술하여 현재 자료로서 풍부하게 남게 되었다.

효명세자 시기에 거행된 국연(國宴)은 순조 무자년(1827년)에 순원숙황후의 생신을 축하하는 진작례 두 번과 순조의 공덕을 기리는 존호를 올린 일을 경축하는 진작례, 1829년 2월에 순조의 등극 30년과 탄신 40년을 경축하는 진찬례, 또 6월에는 탄신일을 경축하는 진찬례가 있었다. 이 당시 창작된 정재는佳人剪牡丹(佳人剪牡丹), 보상무(寶相舞), 춘앵전(春鶯?), 장생보연지무(長生寶宴之舞) 등으로 효명세자가 직접 예재(御裁)하고 재창작하였으며, 궁중의 모든 연향이나 정재양식을 새롭게 정비하여 조선 후기 궁중예술의 황금기를 이룩하였다. 당시 새로 창작된 정재는 조선조 초기의 정치적 성격을 탈피하고 태평성대와 경관(景觀), 예연(禮宴)에 대한 감상, 흥겨움에 대한 감상적 정서가 늘어나는 등 개성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정재 '춘앵전(春鶯?)'은 당나라 고종이 어느 봄날 새벽에 피꼬리 울음소리를 듣고 춘앵전이라는 곡을 짓게 하였다는 중국『교방기(敎坊記)』의 일화를 소재로 화문석 위에 독무(獨舞)로 지어진 정재로 우아하고 품위 있는 흥취를 느낄 수 있어 우리 궁중정재의 백미(白眉)라 일컬어진다. 이렇게 궁중 정재에 있어서 한국적인 독특한 예술을 부활시켰던 효명세자는 1827년 대리청정



후에 1830년까지 3년여의 정사를 마감하고 2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효명세자의 이러한 끈기와 노력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는 한국인의 표상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예이다. 이렇게 한국예술을 끊임없이 이어나간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기에 현재에 이르러 후세인들이 우리 전통의 아름다운 궁중정재를 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전통 궁중정재를 잇는 우리 민족의 계보

한국 전통의 궁중정재가 현재에 이어 내려 온 데에는 또한 일제시대 마지막 이왕직 아악부생이었던 김천홍 선생의 노력을 빼놓을 수가 없다. 김천홍 선생은 1930년 영친왕 환국 환영시 정재에 출연하는 등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가운데서도 국악 활동을 계속 해왔으며, 전쟁 후 국립국악원의 국악사양성소에서 정재 27종목을 지도 안무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연활동을 펼쳤다. 올해로 99세를 맞이한 김천홍 선생의 얼마 전 생신에 잠시 뵈었는데, 비록 몸은 불편하시지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밝은 선생의 눈빛을 대하는 순간 진정한 예인의 끈기와 노력에 대한 경외와 감사의 마음에 가슴이 벅찼다.

그 밖에도 민속예술 분야에 있어서 고대의 무(巫)문화 속에서 비롯된 한국 춤이 역사 속에서 유교(儒敎), 불교(佛敎) 등의 외래종교와 사대주의 사상의 확산으로 인하여 계급적 하락과 탄압을 겪는 가운데서도 민중 속에서 끊임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현재의 탈춤과 풍물, 굿 등을 지켜냈다는 것도 한민족의 끈기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민속예술은 근대를 거쳐 한성준과 같은 전통춤 예인들에 의해 무대 위로 재창작되어 살풀이, 태평무, 승무 등 현재에도 가치를 인정받는 소중한 한국 전통춤 양식을 형성하며 이

어 내려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강릉단오제의 경우 사라져 갈 뻔한 우리 전통예술을 지속적으로 지켜내어 지난 2005년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되어 우리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지금 현재 무용원의 세계민족무용연구소에서는 순조 무자년 순원왕후의 생신에 행해졌던 궁중의례인 진작례를 철저한 문헌고증과 함께 창덕궁 연경당에 당시 그대로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당시 시중을 들던 궁녀와 무원(舞員)은 물론이고 의상과 음식, 무대까지도 의궤(儀軌)를 바탕으로 그대로 복원하였으며, 진작례의 주인공인 왕과 왕비, 효명세자를 비롯한 왕실의 내빈은 미리 선정된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살아있는 효(孝)의 정신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도록 하였다. 복원되는 정재의 종류도 3년에 걸쳐 17종에 달하며, 이는 또한 창덕궁의 연경당이라는 공간을 당시 전통예술과의 재회를 통하여 살아있는 문화재로서 활기를 불어넣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렇게 한국의 전통예술을 이어나가고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끈기와 노력이 이어지는 한 우리의 전통문화는 한국인의 가슴속에 착한 심성과 함께 고귀한 유산으로 간직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



허영일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소장

미디어시대의 관조와 끈기

추사의 <세한도>는 작가가 써놓은 글을 통해서 그림을 볼 수 있듯이 백남준의 비디오작품은 동영상으로 작품을 읽어야 한다. 많은 시간을 사이에 둔 서로 다른 작품이지만 우리는 끈기를 갖고 관조하여야 할 것이다. 빠르게 설 새 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더 지긋한 눈으로 더 오래 되새기며야 할 것이다.

현대를 장악한 미디어의 세계

각종 테크놀로지가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현대인들은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순발력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이제까지 지식체계들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수용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깊이 있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아가는 방법은 새로이 등장하는 새로운 것들 대하여 즉흥적인 터듬이만 남아있게 된다.

텔레비전 광고, 음악 비디오클립, 매스미디어 등 흔하게 접하는 영상들에서 순발력인 낮은 기성세대들의 부적응은 흔한 일이다. 그러한 영상들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거나 아니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한 영상에서 제공하는 복잡한 내용들은 관조나 사고를 요구하기보다는 쉽게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터듬이를 곤두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내부에 있는 본질을 알기 쉽지 않다. 우리의 사고 안에서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코드들을 사용하고, 그 코드들은 대중문화에 깊게 스며있으며 매스미디어들을 통해 넓게 확산되어 있어서 익숙할 뿐이지 그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본질을 모르고 살고 있다. 여기에서 미디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중계자이면서 우리의 감각을 지배하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매스미디어에서 전달하는 정보들은 더 이상 상징적인 내용을 소통하는 매체가 아니라 감추어진 자신의 영향력을 기술적으로 확산시킨다. 거기에는 소비사회의 경제적인 효력만이 작용하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보여 진다.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어지는 정보는 우리의 현존이나, 만질 수 있는 실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지식과 문화가 아니라 과거 학교 교육의 희미한 기억과 유행의 지적 표시로 나타나는 기호의 실현뿐이라고 장 보드리야르는 지적한다. 현재 유행하는 시각문화로 현대인은 그 기억의 이면에 있는 실체를 알기에 무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상징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많은 문화적 산물들은 공존하고 있고 아직도 그러한 체계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한 고집이 깊게 남아 있는 것이 미술이다. 미술은 현실에 적응하기 보다는 현대문화를 관통하여 이면을 드러내 놓음으로써 현실과 맞서고 있다.

김정희의 세한도, 여백의 미

과거에 글과 그림은 최상의 미디어이었다. 감정을 함축된 표현으로 감추면서도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면서 시공(時空)을 넘어설 수 있는 미디어이었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는 작가의 심정을 함축하여 표현한 좋은 예이다. 소나무와 잣나무 사이에 한 채의 가옥이 그려져 있고 여백에 '歲寒圖(세한도)' 라는 제목과 한쪽에 그림을 그릴 때 작가의 심정을 써 넣었다. 네 그루의 나무들이 쌍쌍이 서있어서 풍성할 것 같으면서도 빈약한 가지에서 겨울의 한기를 느끼게 된다. 또한 나란히 서 있는 두 그루의 나무들 사이에 초라한 집 한 채, 미완성처럼 보이는 필치에서 작가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이 작품은 현대인의 감성으로도 스산한 작가의 심정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시간을 갖고 이 그림을 관조하다 보면 작가의 내면세계를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작가가 곁 들여 써놓은 글과 다른 사람들의 찬사들을 읽게 되면 더욱더 새롭게 보이는 그림이다. 말하자면 이 작품은 오래 동안 바라보면서 끈기를 갖고 관조하여야 얻게 되는 의미

한
산



들이 있다. 이 그림 뿐 아니라 대부분 과거 그림들은 그려진 배경과 그림을 비교하면서 볼 때 얻을 수 있는 깊이가 항상 있기 마련이다.

끈기의 산물, 비디오 아트

그와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의 감각과 맞으면서도 우리에게 다른 끈기를 요구하는 작품들이 있다. 비디오작품들이다. 비디오작품은 특성상 시간을 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작품에 제시되는 영상의 시간만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봐야한다.

대부분 비디오 작가들은 우리시대의 감각적인 상황을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텔레비전과 동일한 감각을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작품이다. 그러나 화면에 영상들은 빠르게 움직이거나 움직임을 느끼게 하여 우리의 시 지각이 적응하기 쉽지 않은 작품들이 많이 있다. 화면에 빠르게 흘러지는 영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기보다는 장면의 빠른 포착과 순간적인 수용 감각, 상황의 적응이 요구된다. 현대인들의 감각, 영상체계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전환 시키면서 관객의 적응상태를 실험하는 것 같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백남준의 작품들에서는 현대인들의 감각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디오 작가로 알려지기까지 그는 끈기 있게 자신의 길을 지키기도 하였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세대를 잘 분석하고 있었다. 그가 초기에 시도 하였던 전위예술은 작품의 특성상 과거를 부정하여야 하고 강력한 자극을 제시하여야 했다. 그 자극은 우리의 깊은 사유를 부정하는 촉각적인 감각에 의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가 청년기에 제시한 많은 거부하는 행위들 뒤에는 현실에 대한 또 다른 제시를 하고 있었다. 그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주는 확신을 담아내고 있었고 그것은 의도된 것이라기보다는 체질적으로 몸에 지닌 감성이었다. 행위와 그 결과물들인 비디오 작업은 영상에 대한 그의 비판적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세한도와 다다이즘의 공통점

요즘 우리는 그의 작품을 여러 미술관에서 볼 수 있지만 그의 작품을 바라보는 대부분 관람객들은 일상적인 호기심에 끌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 백남준의 작품은 대부분 모니터를 쬐어 새로운 형상을 만들면서 그 안에 영상은 빠르게 변화되어 모니터안의 영상을 우리가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입구에서 보게 되는 백남준의 <다다이즘>에서 빠른 영상은 현대인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각적인 것들이다. 빠른 영상을 접할 때 우리는 그 안에 보여 주는 영상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바라보게 하며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것이 작가의 의도이기도하다. 관객들이 지루함이 없이 그의 작품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끈기가 아니라 자극에 끌려들어가는 현대인들의 촉각적 감성을 반영한다.

추사의 <세한도>는 작가가 써놓은 글을 통해서 그림을 볼 수 있듯이 백남준의 비디오작품은 동영상으로 작품을 읽어야한다. 서로 다른 미디어이지만 우리는 끈기를 갖고 관조하여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



조광석 미술 평론가

전통음악의 끈기, 그 느림의 미학

우리나라를 굽이굽이 흐르는 백두대간의 능선을 보고 있노라면 느릿하게 연주되는 우리의 궁중 음악을 떠올리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빨리 빨리' 습성을 가진 민족이라고들 한다. 이는 우리의 저 깊은 곳에 살아있는 느림의 미학에 대해 몰라쳐 하는 말이다. 이 땅에 흐르는 산맥과 닮아있는 우리네 음률에 몸을 맡기고 호젓하게 눈을 감아 본다.

더 빨리 빨리, 스피드의 시대

몇 년 전 어느 포럼자리에서 한 영화평론가로부터 한국영화가 급부상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영화평론가는 한국영화가 일본 영화나 인접 국가의 영화들을 제치고 할리우드 영화와 동등한 흥행을 보이는 결정적인 요소로 한국영화의 매우 빠른 속도처리를 꼽았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예컨대 10년 전 영화에서 한 컷 당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2~3초였다면 현재는 한 컷을 지속하는 평균 시간이 0.5초, 0.3초 등으로 빨라져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장면을 인간의 뇌가 무엇인지 채 인식하기도 전에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한국영화의 부상은 우리 민족의 '빨리 빨리' 근성이 긍정적으로 발휘한 효과라고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속도의 문제가 경제나 생산의 효율성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산업화와 함께 우리의 미적 감수성이나 취향의 영역까지도 깊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대사회는 스피드 시대라고 한다. 그러므로 속도의 문제는 비단 영화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속도에 대한 우리의 관념과 감각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전 방위에 걸쳐 생활양식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빠름의 미덕만 강조되는 사회를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얼마나 숨 막히는 것인가. 빠름의 효율성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일정 정도 공헌한 것은 사실이

나 빠름을 배태시킨 무제한적인 경쟁은 인간사회와 지구에 부메랑이 되어 다시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까닭에 한편에서 파국을 향해 달리는 지구라는 기차 바퀴를 역으로 돌리려는 미약한 목소리가 바로 '느림'의 미학으로 대변되고 있다. 느림의 미학이 집중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생태적 리듬과 속도에 인간의 속도를 맞추자는 것이다. 느림의 시각적 이미지는 빠름을 나타내는 직선 대신에 산의 능선 같은 구불구불한 곡선으로 나타나며 느림의 마음상태는 자연과 지구를 지배하기 보다는 이에 순응하며 더불어 살려고 하는 공존의 여유로움을 동반한다. 그러나 인스턴트 식품이 전자레인지에 데워지고 컴퓨터가 부팅되는 그 찰나도 지루하다고 느끼는 현대인의 속도 감각에서 이러한 곡선적 삶의 태도는 끈기와 인내, 기다림의 태도를 숙명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기실 우리 민족이 '빨리 빨리'를 미덕으로 삼았던 세월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지극히 짧은 시간에 속한다. 197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으로 구체화된 근대화 프로젝트에 의해 급성장하는 우리사회가 전술적으로 이용한 구호가 바로 '빨리 빨리'였기 때문에 빠름을 추구하는 역사는 반세기도 되지 않는 것이다.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기다림과 인내를 생애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우리 민족의 심성은 미적 반영의 결과물이



자 그 정서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전통예술의 미적 원리에서 잘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전통음악은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인 리듬을 타고 긴 호흡 속에 만들어지는 느낌의 미학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느림의 미학, 궁중음악

한음이 다른 한음으로 곧바로 이동하면서 중국점을 향하는 직선의 흐름이 아니라 음 하나 하나가 긴 호흡을 가지고 떨고 꺾고 흔들고 하는 가운데 시작과 끝의 경계를 중요시여기지 않는 전통음악의 선율 선은 능청능청 한반도를 에워싸는 야산의 겹겹 능선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일례로 궁중음악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수제천>이란 곡은 규칙적인 고동박을 찾을 수 없어서 리듬 자체가 없는 것처럼 느린 템포로 진행되는데 유장하게 흐르는 곡선의 선율선이 굽이굽이 연결되는 백두대간의 능선을 연상케 한다. 청자 역시 이러한 음악적 미적 질감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특별히 시속 100km 이상으로 질주하는 자동차에 쭈뼛 지나가는 산을 구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차에 내려서 느릿느릿 산보하면서 그 능선을 직접 올라 타보는 마음이 필요하다. 인스턴트 문화와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어 잠시도 정적(靜的)인 상태를 참지 못하는 젊은이나 청소년들에게 끈기와 인내심을 기르는 데 있어 전통음악 감상을 권하고 싶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컨대 한 시간이 채 못 되거나 이를 훌쩍 넘어서는 모음곡으로서 기악곡 영산회상 한바탕이나 성악곡인 가곡 한바탕을 감상하다 보면 본디 끈기가 인간 욕망을 억누르는 억압적 극기 훈련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민족이 가졌던, 그러나 현재는 퇴색되어가는 자연의 질서와 생태적 리듬, 그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맡길 줄 아는 생태적인 심성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임을 알려준다.

선비의 심성과 생태가 담긴 우리의 음악

여기서는 흔히 옛 선비들의 미적 심성과 생태를 그대로 나타난 음악으로 알려져 있는 성악 모음곡 가곡 한바탕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한다. 가곡은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인 시조시에 선율을 붙여서 전통 관현반주에 맞추어 가락적으로 관계가 있는 여러 곡들이 모여져 한 바탕을 이루게 되는데 현행처럼 1시간 넘는 길이의 한바탕이 남녀가 번갈아 부르는 24곡 모음곡으로 정착된 것은 조선 후기에 와서이다. 가곡은 기악곡 모음곡인 영산회상이나 산조와 마찬가지로 매우 느린 템포에서 시작하여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운데 흥을 돋우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메트로놈으로 속도를 재기도 어려운 정도로 느린 이삭

대엽으로 시작하여 남창과 여창이 교대하는 가운데 점점 가락이 조여지고 거뜩거뜩 해지면서 속도감 있는 진행을 전개하다가 마지막 곡인 '태평기' 라는 곡에서 남녀가 처음으로 함께 제창하게 되는데 이때 다시 매우 느려져서 매우 긴 호흡으로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데 있다. 가곡 한바탕을 들고 있노라면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기보다는 정지된 시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여 음악적 명상의 세계에 자신의 몸과 마음이 푹 젖어드는 느낌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빠르고 강한 비트가 일상화된 대중문화의 음악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가곡을 처음 접하게 되면 방향도, 시간도 알 길 없는 망망대해의 바다 속에 떠있는 조각배 마냥 무척 당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각배를 특별한 목적지를 향해 일정시간 안에 사람을 실어 날라야 하는 교통수단의 하나로 보지 않고 그냥 조각배에 앉아 바다의 흔들림과 그 흔들림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파고를 섬세하게 느끼고 즐긴다고 생각해 보라. 가곡을 듣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가곡에서 서양 예술음악을 듣듯이 긴장과 대비를 찾거나, 대중음악을 듣듯이 강한 비트나 규칙적이고 빠른 리듬을 찾지 않고, 몸으로 호흡하듯, 명상하듯이 가곡이 만들어내는 음악적 환경에 무심하게 내맡겨 보라. 어느새 그 선율의 떨림과 그 떨림이 만들어내는 입체감 자체가 우리 몸과 마음에 자연스럽게 푹 젖어들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쯤 되면 끈기라는 덕목을 인위적으로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끈기를 통해 찾곤 자 하는 호흡과 리듬을 자연스런 생체 리듬으로 체득하고 있지 않을까. ☺



이소영 음악평론가

서로 칭찬하며 삽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삶을 영위하는 동안 서로 얽히고 부딪히면서 칭찬도 하고 비난도 하며 사는 것이 오늘의 삶이다.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받기를 원하는지도 모른다. 평소 칭찬받기를 그렇게 싫어했던 나폴레옹도 “저는 각하를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것은 각하의 칭찬을 싫어하는 그 성품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라는 부하의 말을 듣고 몹시 흐뭇해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듯 칭찬받고 싶어 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런 원초적인 욕구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일까. 켈블랜차드컴퍼니의 회장이자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켈 블랜차드’는 플로리다에 출장을 가 있는 동안 우연한 기회에 씨월드 해양관에서 범고래의 멋진 쇼를 관람했다. 그저 고래가 해엄칠 정도 일거라 생각하고 쇼를 관람하였는데 의외로 너무 멋진 쇼를 하기에 감동하여 범고래 수석 조련사를 만났는데 그때 정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범고래 쇼에 있어서 범고래와

인간관계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며 그 고래가 멋진 쇼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비결은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조련사가 범고래는 틀림없이 쇼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고 범고래에 즉각적인 칭찬과 반응을 보여줄 때 범고래는 멋진 연기를 나타낼 수 있었으며 특히 관중들의 우레와 같은 칭찬의 박수는 더 훌륭한 쇼를 연출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옛 선인들은 칭찬을 아끼지 말라는 뜻에서 많은 금언을 남겼다. 레티샤 엘리자베스 랜던은 ‘때때로 칭찬은 소심한 자와 풀이 죽은 자에게 좋은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친절에 적절히 의존하도록 가르쳐 준다’고 했고 영국 속담에는 ‘바보를 칭찬해 보라 그러면 너가 그를 훌륭하게 쓸 수 있다’고 했다. 조안나 베일리는 ‘반쯤 가리운 미를 보는 것이 전체를 보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보듯 반쯤 말한 칭찬이 호기심이 진지한 사람에게는 더 큰 칭찬이 된다’고 했으며 러시아의 격언에는 ‘나는 큰 소리로 칭찬하고 작은 소리로 비난한다’ 했고 스미스 홀런드는 ‘칭찬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식사다’라며 칭찬에 대한 아름다운 말들은 좋은 생활훈으로 남겨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라고 해서 그 당시의 상황과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비슷한 유형의 칭찬을 남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본다.

우리가 남을 위해 칭찬을 하는데는 많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민성은 칭찬과는 담을 쌓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들에게는 특히나 힘든 일이다. 그럼으로 칭찬을 할 때는 칭찬해 줄 사람에 따라서 칭찬하는 방법이 달라야 하고 사고의 패턴과 외부세계에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가식된 칭찬으로 아침을 남음해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는가 하면 자기의 목적 달성만을 위해 동기불순의 칭찬으로 상대의 일생을 흠집내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아침을 위한 칭찬을 몹시 경계하며 ‘너를 비난하는 사람은 가까이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멀리하라’ 했는가 하면 ‘나를 칭찬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칭찬을 좋아하는 자는 유혹도 좋아한다’ 라는 극언까지 했던 게 오늘날 우리 민족이 칭찬하는 데 인색하다는 말을 듣는 게 아닌가 싶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과 세 번 꾸지람을 하면 일곱 번 칭찬하라는 격언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상대방의 장점만을 찾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칭찬할 만한 칭찬 거리를 만들어 간다면 칭찬을 통해 인생에서 승리할 것이며 오늘의 우리 사회는 더 밝고 명랑해질 것이다. ☺



박형철 한림문학회 이사장 / 전 광주문인협회장

외롭고 적막하지만 비경으로 가득한 섬,

두미도

삼면이 바다인 탓에 우리나라에는 알려진 것보다 제법 많은 섬들이 존재한다.
섬에서 토박이로 자라난 사람들의 손길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의 흔적이 없어 외롭고 쓸쓸한 섬.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 속에 태곳적 마음다움을 품고있는 곳들이 많다.
홀로된 섬의 흔적을 따라 한 곳 한 곳 기웃거리 본다.

동백나무 너머로 바라본 두미도의 바다



- ① 완만한 산자락에 들어선 학리마을 풍경.
- ② 물 맑은 학리 선착장.
- ③ 바다에서 바라본 구전마을 풍경
- ④ 두미도의 아름다운 동백
- ⑤ 두미도에서 볼 수 있는 흰 동백
- ⑥ 들에서 방금 캐온 봄쑥.



새들이 노니는 통영의 섬, 꽃과 함께 하다

통영 여객선터미널에서 하루 두 번 운행하는 완행선을 타고 두미도로 간다. 통영에 술하게 많은 섬이 있지만, 아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드문 섬이 바로 두미도다. 지도상으로는 물과의 거리가 육지도와 비슷한데, 배는 육지도 인근의 연화도, 우도, 납도, 노대도를 다 돌아 두미도에 도착하므로 때때로 완행선은 3시간씩이나 걸린다. 하지만 3시간 가까운 뱃길은 통영 앞바다의 세배처럼 흩어진 섬들을 구경하는 재미에 지루할 새가 없다. 오랜 뱃길을 달려 도착한 두미도 구전마을 선착장은 심심할 정도로 한가했다. 사람도 없고 어선도 몇 척 보이지 않는다. 무서울 정도로 적막한 섬.

선착장에서 마을로 오르는 길목의 손바닥만한 떼기밭엔 유채꽃이 한창이다. 마을로 올라서면 해풍을 막아 주듯 들어선 동백숲이 길을 따라 펼쳐져 있다. 이 곳의 동백은 상당수가 수령 수백 년은 족히 되는 묵은 동백들이다. 나무마다 검붉은 동백꽃이 탐스럽게 피어 있고, 바닥에는 떨어진 동백꽃으로 눈이 부시다. 두미도의 동백은 빛깔이 유난히 곱고 진하며, 약간 검붉은 색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특징이다. 두미도에서는 청석마을에서 수백 년 된 흰동백도 만날 수 있는데, 사실 토종 흰동백은 거문도와 보길도를 비롯해 몇몇 곳에 만 남아 있는 희귀한 수종이다. 더욱이 수령이 수백 년 된 흰동백은 귀하다귀한 것이지만, 이 동백은 아직까 지 외부에 전혀 알려진 적이 없다.

두미남구 구전마을은 20가구가 조금 넘는 아담한 포구마을이다. 구전마을에서는 저녁이 너무 일찍 찾아 온다. 마을이 동남쪽에 위치한데다 바로 뒷산이 경남의 섬에서는 가장 높은 해발 467미터의 가파른 천황봉이 솟아 있어 봄철인데도 오후 4시가 되면 해가 넘어간다. 두미도는 두미남구와 두미북구로 나뉘는데, 남구에는 구전, 청석, 대판마을이 있고, 북구에는 사동, 학리, 고운, 설풍마을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남



- ⑦ 빨랫줄에 매주를 매달아놓은 풍경
- ⑧ 김시매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다
- ⑨ 구전마을 선착장 앞바다에 떠 있는 갈매기들
- ⑩ 김시매 할머니댁 부엌에 뿌얇게 먼지가 앉은 기름병.
- ⑪ 구전마을의 일출.
- ⑫ 두남분교 초등학생이 그린 두남마을 지도.



구 구전마을과 북구 학리에 모여 산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두미도라는 이름은 하늘에서 볼 때 용의 머리와 꼬리만 있는 형국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섬의 어디가 꼬리고, 어디가 머리인지 몰라서 두미도라고 했다는 말도 전해온다.

산위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구전마을

섬치고는 제법 높은 봉우리 아래 마을이 있다 보니, 구전마을은 집이고 밭이고 모든 게 층층이 계단식으로 조성돼 있다. 해가 넘어가기 무섭게 구전마을에는 한 집 두 집 저녁연기가 피어오른다. 저녁이 다 돼 찾아들 어간 김시매 할머니(72세) 댁도 마침 할머니가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다. 방금 들에 나갔다 왔는지 봉당 마루에 내놓은 바구니에는 봄내 나는 쭈기 한 가득이다. 부엌문 옆 벽에는 조리며 체, 생선발이 걸려 있고, 마루에는 오래 되어 낡았으나 살 무늬가 선명한 떡살이 바가지에 담겨 있다. 안방을 열어보니 방안에는 할머니가 시집을 때 해 왔다는 경첩장이 옛 빛을 머금고 들어앉아 있다. 그리고 아랫목 벽에는 눈에 띄는 무언가가 걸려 있었는데, 성주였다.

누렇게 색이 바랬으나 한지 오라기로 꾸민 신체가 고스란히 남은 성주였다. 오라기의 모양은 중간 중간 나뭇잎을 매단 듯 꾸몄고, 오라기를 들추자 안에는 잘 접은 한지뭉음이 걸려 있었다. “저것이 우리 집에 그 때 안택하러 온 점쟁이가 와 맨들어서 붙이놓고 간 거 여직 모시고 있어요.” 할머니는 지금은 따로 성주상을 차려 모시지는 않지만, 죽을 때까지는 성주를 안방에 모시고 있을 거라고 했다. 조왕신은 따로 모시지 않지만, 할머니는 부엌의 가운데 가마솥이 조왕솥이라고 한다. “어디 조왕이 따로 있간디.” 불을 다 때고나자 할머니는 마루에 걸터앉아 쭈기를 다듬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은 쭈된장국이나 쭈버무리라도 하실 모양이다.

불덩이 같은 아침 해가 솟는 비경의섬

이튿날은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찌감치 마을 뒷산에 올랐다. 멀리 열린 해무를 헤치고 불덩이 같은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데, 부지런한 어부들은 이미 어선을 부려 황금빛 아침바다를 가르며 출어에 나서고 있다. 포구에서 만난 한 어부에 따르면 두미도에서는 봄이면 가오리, 도다리, 광어, 돛이 많이 잡히고, 여름과 가을에는 서대, 갈치, 갑오징어, 겨울에는 물매기, 대구가 많이 올라온다고 한다. 문어는 1년 열두 달이 흔하다. 섬 주변이 온통 물고기밭이어서 바다 낚시꾼들에게는 두미도가 숨겨놓고 싶은 비밀장소라고 한다. 하지만 두미도의 어부는 많지가 않다. 젊은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구전마을에서 사동으로 넘어가는 조붓한 산길은 온통 동백이 터널을 이루었다. 동백 터널을 지나면 한동안 길을 따라 하얀 산자고 꽃밭이 펼쳐진다. 한두 곳이 아니라 아예 길가의 산비탈이 산자고 군락지다. 조금 더 산길을 타고 올라가자 이번에는 노루귀밭이 이어진다. 흰노루귀 군락 사이로 몇몇 송이는 분홍색 꽃이 피었다. 구전마을에서 사동을 지나 학리까지는 십리가 조금 넘는 길이다. 개미 한 마리 지나지 않는 은밀한 산길은 내내 꽃밭이고 비경의 연속이다. 길 아래로는 이미 사람들이 다 떠난 빈집들이 수도룩하다. 주인이 버리고 간 복사꽃이며 살구꽃은 무너진 담벼락 틈새에서, 폐허가 된 장독대 옆에서 보란 듯이 꽃을 피우고 있다. 고요하고 외로운 길을 넘어가면 이제 학리마을이 보기 좋게 펼쳐진다.

학리에는 두미도에서 가장 많은 30여 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다. 포구도 구전마을보다 훨씬 크고, 마을의 터도 훨씬 넓다. 학리의 집들도 산비탈을 따라 계단식으로 조성돼 있는데, 구전마을보다는 경사가 훨씬 완만하다. 민박집을 운영하며 낚시꾼을 실어 나르는 광창평 씨(63)는 섬 곳곳에 비경이 숨어 있는 두미도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두미도의 비경은 배를 타고 해안을 한 바퀴 돌아봐야만 알 수 있다는 말도 했다. 두미도에서는 고운, 설봉, 덕동, 대판마을과 같은 외딴 바닷가 마을로 가려면 배를 타는 게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이다. 사실 이 마을들은 두미도의 비경처럼 꼭꼭 숨겨져 있다. 두미도 해안을 배로 한 바퀴 돌아 보면, 광씨의 말처럼 천혜의 풍경을 자랑하는 해식동굴과 기묘한 바위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고, 절경의 해변을 차지한 가마우지 서식처도 덩으로 구경할 수 있다. 특히 청석마을 인근에서 만나는 얼굴바위는 아이가 입을 벌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신기한 모습이다. 외롭고 적막하지만 웃고 있는 얼굴바위처럼 두미도는 언제나 웃으며 사람을 맞는다. ☺



(여행정보)

통영여객선터미널에서 1일 2회(06:30, 14:00) 완행선을 운행한다.
 배편문의 : 통영여객선터미널 055-642-0116, 641-0313 645-3717
 민박집 구전마을 심태근 씨 642-6789, 010-6325-9721
 학리 광창평 씨 011-554-3722, 두미도 어촌계 644-9273.



이용한 시인/여행작가


천손민족 天孫民族
흔뵈겨레
얼을 되살립시다

영키고, 뒤틀어진 역사_{歷史}, 문화_{文化}를 바로 봅시다.
 홍익인간_{弘益人間} 정신_{精神}은 동방_{東方}의 등불입니다.



제회 국유형 사유혼 (國猶形 史猶魂 = 나라가 몸이라면 역사는 혼입니다.)

1.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총체적 위기는 고질병입니다.

일제 강점 35년의 질곡을 벗어나 광복됐으나 열강에 의해 잘린 우리 강토는 환갑이 지나도록 그대로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헤어진 가족은 이산의 슬픔을 달래다가 지쳐서 늙고, 유명(幽冥)을 달리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50마일 휴전선 철조망은 7천만 겨레가 목 놓아 부른 통일 노래에 이제 겨우 두어군데 뚫는 것으로 한 가닥 희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겨레의 어려움이 남북분단 때문이라고 그 탓을 남에게 돌릴 수 있다지만, 그러나 지금 동서 간의 지역감정은 누구 탓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민주화와 지역분권의 허울 좋은 명분이 지역 이기주의만 부채질하여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리적으로 사분오열(四分五裂)한 것도 모자라 어른, 아이, 젊은이, 세대 간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세대도 요즘은 2-30대, 3-40대, 5-60대로 더욱 세분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경영인과 노동자, 사무직과 기술직, 계층 간, 업종 간의 갈등이 뒤엉켜어지고, 여기에 보수와 개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까지 내세워 이념 갈등이 평행선만 긋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한 곳 성한 곳 없이 헤어지고 뒤틀어져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할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래서는 안 된다.' 한탄만 하면서도 손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현상을 다들 총체적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맞고 있는 이 총체적 위기가 근세에 갑자기 생긴 병세가 아니라 오랫동안 치유하지 못하고 병색만 짙어진 우리 겨레의 고질병이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2. 고질병은 대증요법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계에서는 여야 모두 민생정치, 국정쇄신을 주장하지만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갖가지 연구를 내놓고 있지만 피상적 이론으로 공허하기만 합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증세만 치료하는 대증요법(對症療法)으로는 체력만 허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고질병은 원인을 제대로 찾아 치료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겨레가 앓고 있는 병세를 눈여겨 살펴보면 스스로 주체성을 잃고, 저마다 가치관이 달라 주의, 주장만 우기는 혼란스러운 상태, 어지럼병으로 보입니다. 민족정

기는 느끼기 어렵고, 공동체에는 생기를 잃어버린 채 멍한 증세, 뉘이 나가고, 얼이 빠져있는 증세입니다.

우리 겨레의 얼빠짐 증세를 되돌아보면 상당히 오래된 숙환(宿患)입니다. 숙환도 한 두 가지가 아니라 적어도 서너 가지 병이 덧씌워져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냥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요즘은 자포자기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늘어나고, 나라와 겨레에 실망한 어떤 사람들은 이민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겨레는 그렇게 험하게 포기해도 좋을 만큼 보잘 것 없는 겨레가 아닙니다. 우리 겨레가 인류역사에 가장 유구하고 훌륭한 민족임을 알게 된다면 그냥 그렇게 선부른 짓을 해도 되는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앓고 있는 고질병의 원인을 찾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병을 다스려, 천손민족(天孫民族)을 자랑해 왔던 훈북 겨레의 얼을 되살려 홍익인간(弘益人間)정신으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배달문화를 꽃 피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3. 잃어버린 역사 반만년(半萬年)을 회복합시다.

현재 우리 겨레가 앓고 있는 고질병의 원인을 찾아보면 역사를 잃어버리고, 강도가 잘려 나가고, 문화가 황폐해 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겨레 대부분은 우리의 참된 역사를 모르고,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알팍한 지식인양 주장하고 있는 한심한 상황입니다. 상고시대(上古時代) 고조선(古朝鮮)과 삼한(三韓)의 역사를 잃어버리

우리 모두 우리가 앓고 있는 고질병의 원인을 찾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병을 다스려, 천손민족(天孫民族)을 자랑해 왔던 훈북 겨레의 얼을 되살려 홍익인간(弘益人間)정신으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배달문화를 꽃 피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국사 교과서에 고조선의 역사를 실사(實事)로 인정하고 청동기시대 상한(上限)을 천년 정도 앞당긴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도 미봉(彌縫)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이 계산해준 역사 반만년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잃어버린 나머지 반만년을 되찾아 온전한 만년(萬年)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고, 삼국(三國)시대 역사만 붙잡고 있습니다. 대진국(大辰國=발해(渤海))의 역사는 내버렸습니다. 학교에서는 배달(倍達)겨레의 역사가 반만년(半萬年)이라 면서도 교과서에는 2천년 역사만 써 있습니다. 이런 모순되고, 눈먼 교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들이 나라와 사회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입니다.

올해 국사 교과서에 고조선의 역사를 실사(實事)로 인정하고 청동기시대 상한(上限)을 천년 정도 앞당긴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도 미봉(彌縫)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이 계산해준 역사 반만년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잃어버린 나머지 반만년을 되찾아 온전한 만년(萬年)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4. 조작된 반도사관(半島史觀)에서 벗어나십시오.

선조들이 찬란한 문화를 펼쳤던 대륙의 광대한 강토를 억지로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배달겨레를 구리(九黎), 구이(九夷), 동이(東夷)로 기록한 지나(支那)의 역사책이 수 없이 많고, 최근에는 만주와 내몽고 접경지역 홍산(紅山)지역과 산둥반도(山東半島)의 용산문화(龍山文化) 유적지에서 고조선 유물들이 속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대륙에 엄존했던 고조선을 좁은 반도에 구겨 넣어야 할, 말 못할 사정이 무엇입니까? 삼국사기(三國史記)는 금(金)나라 억압이 무서워 대륙의 역사를 은유해서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광명(光明) 세상 지금도 반도(半島)사관(史觀)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소중화(小中華) 사상을 못 버려서 그런가요? 아니면 일제 총독부가 왜곡한 반도조선사(半島朝鮮史)가 소중해서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반도사관에 매달려 있으면서 어떻게 동북공정(東北工程)에 대응할 수 있으며, 독도 침탈을 당하면서도 독도를 중간 수역으로 경계 그어 강토를 떼어 주고도 잘못을 모르고 있습니다.

겨레의 자존심을 살리고 동북 아세아에서 당당하게 선린우호하기 위해서도 조작된 반도사관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5. 단군신화(檀君神話)의 망상(妄想)을 털어 버립시다.

단군은 신화니까 역사가 아니라는 논리는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제가 식민지 고착을 위해 펼친 논리입니다. 기미독립운동 이후 민족정기를 꺾기 위해 서둘렀던 조선사편찬 위원회가 1935년 발행한 반도조선사(半島朝鮮史) 서문에서 단군신화라는 용어를 처음 썼습니다. 물론 환웅과 곰이 만나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나오지만, 민족 이동, 발전기에 북방(北方) 천손(天孫) 민족(民族)과 남방(南方) 곰 토벌족이 융합하는 과정을 축약한 것입니다. 어느 민족 건국 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 설화를 역사에서 제외하는 겨레는 우리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군 설화는 오히려 역사적 사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후세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도 우리 겨레가 지니고 있었던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단군은 신화니까 역사가 아니라는 망상을 털어 버려야 합니다.

고려 말, 나라와 겨레의 위기를 당했을 때, 구국일념으로 고뇌하던 행촌(杏村) 이암(李嶽) 선생께서 단군세기(檀君世紀) 서문(序文)에 국유형 사유혼(國猶形史猶魂), 나라가 폄이라면 역사는 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찾기, 겨레 얼 살리기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도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고, 겨레의 얼을 되살려야 하겠습니다. ☺



서승 전주문화원장



전통의 향기와 새로운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곳

인천 연수문화원을 다녀와서



역동의 도시, 인천

인천공항과 인천신항의 건설 이후 국제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역동적인 도시로 알려진 인천. 이번 2014년 아시안게임의 유치로 인천은 근래 더욱 조명을 받고 있다. 또한 인천 상륙작전을 비롯해 여러 역사적 사건으로도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관광 도시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주말이면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몰려드는 풍경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 인천. 봄을 밀어내고 자박자박 여름이 오는 오후, 인천의 연수 문화원을 찾아 김원옥 원장을 만났다.

욕심이 많아 더욱 바쁜 연수문화원

지난 2001년 새로 문을 연 연수문화원은 햇수로 올해 6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으로 따지면 겨우 한글을 배울 나이의 문화원이다. 그러나 적은 나이에 비해 그 열정과 사업의 분주함은 체계가 어느 정도 잡힌 어느 문화원 부럽지 않다. 물론 자리를 확고히 잡은 안정된 문화원은 물론 아니지만 문화사업에 대한 욕심과 패기로 뭉친 젊은 문화원이기 때문에 문화원 식구들은 바쁜 가운데에서도 긍지를 잃지 않는다.

연수문화원에서 다채로운 공연 행사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이요, 학교문화예술산업, 평생교육, 문화센터, 갤러리 운영 등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빠듯할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었다. 여러 공연행사나 문화행사는 김원옥 원장이 직접 나서서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김원장이 손수 외국과의 교섭도 진행하고 국내 문화계 인사들 초빙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욕심이 많아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불문화자다 보니까 프랑스와의 문화교류에도 관심이 크답니다. 그래서 아비뇽 축제를 연계해서 우리 구민에게도 문화를 향유하고 싶은 욕심이죠.”

김원옥 원장은 인천 연수구 안에서의 문화 생산 교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해외에까지 욕심이 많다. 작년까지만 해도 매해 꾸준히 심양에서 문화체험행사를 추진한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국내적인 문화교류도 중요하지만 많은 나라와의 교류 또한 빠질 수는 없을 터. 중국, 프랑스 등지를 비롯, 틈만 나면 연계할 문화행사가 있을지 둘러보는 것도 김원장의 중요 업무이다

연수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학교문화예술산업은 청소년 사업의 일환으로, 입시에 찌든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를 향유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데서 비롯된 프로그램이다. 가만히 앉아서 청소년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학교에 직접 연락을 취하고 연계해 다양한 문화행사와 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입시 위주의 학교들에게서는 외면을 받기도 하지만 그 영역을 차근차근 넓히고 있다.

그리고 나날이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빠질 수 없는 평생교육과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센터, 그리고 연수구청에 있던 갤러리를 관리하게 되면서 전시 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의 뿌리, 역사의 중요성

지방 문화원의 역할의 하나로, 그 지역의 향토사를 보존하고 정리하고 알리는 데 힘써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연수문화원도 그 중요성을 실감하는 바, 꾸준히 향토 및 전통문화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잊지 않



① 연수문화원 현판
② 김원옥 원장
③ 강의를 집중하는 아이
④ ⑤ 문화원생의 작품들





는다. 인천에 산재한 문화유산과 자연을 둘러보는 '향토사랑 문화기행' 과 향토예를 길러주는 기회가 되는 백일장인 '향토 교양 경진대회' 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예절학교' 을 열어 우리 전통예절을 소개하고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각 지역마다 향토사를 잘 정리해 놓고 있는데 우리 연구구는 따로 보관되거나 정리해둔 자료가 없습니다. 정리까지는 힘에 부쳐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지만 연구구의 중요한 곳들을 정리해서 조그만 소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로 아이들과 함께 견학 프로그램을 갖기도 했지요.”

향토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김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연구구의 향토사를 정리한 책자를 발간할 것을 계획 중에 있다. 지방문화원이 지역의 문화 구심체로서 또한 역사의 발판으로서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원사 건립의 희망 정답은 열정과 패기를 가진 사람들

“기회가 될 때마다 옆구리 찌르는 거죠. 옆구리 찌르는 것



① ② 강사의 설명을 듣는 아이들
③ ④ 문화원생의 압화 작품
⑤ ⑥ ⑦ 컴퓨터강좌에 집중하는 어르신들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워낙에 우리 지역 분들은 원사 건립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도 혹시 있으실까 염려되어 종종 옆구리 찌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수구청 7층에 임대된 사무실을 쓰는 연수문화원은 독립된 원사가 없어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길까 염려가 많다고 한다. 김원장은 문화원 자체 내에서 이룰만한 규모의 사업이 아니니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날 때마다 ‘옆구리 찌르며(?)’ 도움 요청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한다.

각 문화원마다 재정 문제가 자립된 곳은 그다지 많지 않다. 물론 연수문화원도 예외는 아니다. 크게는 원사건립 뿐 아니라 사업진행에 있어서도 자금이 필요하기 마련이고 질 좋고 새로운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자금이 더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김원장은 자금에 관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

“뭘 딱히 해결방안은 없지요. 어느 문화원이나 재정이 어려운 것은 다 똑같잖아요. 구청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는 기본적인 행정비 밖에는 안 되죠. 관리비 내고 나면 빠듯해지니까요. 처음에 모자란 부분은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조금이나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지급하고 나면 아주 적은 돈이지만 알뜰히 살림에 보태고 있죠. 적은 돈이나마 쪼개서 많은 사업을 벌이고 또한 참여를 유도합니다. 프로그램이 좋으면 구민들이 더욱 찾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도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뜬금없지만 열심히 임하는 게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소규모라도 고민에 고민을 더한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사람들이 찾을 것이고 수요가 늘면 늘수록 자립하는 것이 그 이치라는 것이다.

“지방문화원 사업 뿐 아니라 문화예술 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니 이 일을 하는 거겠지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문화원은 공무원처럼 정시에 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바로 저희 식구들이 우리 문화원의 제일 큰 자산이죠.”

물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 기반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지금 최고의 자산은 문화원 식구들이라고 자랑하는 김원장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다. ☺



신간소개

● 京畿道 書院總覽 上



●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발행
40개의 서원 및 서원지가 있는 경기도에는 파주 자운서원, 용인 심곡서원, 연천 입장서원 등 유곡 선생과 조광조 선생 그리고 성리학의 창시자인 중국의 주자를 각각 배향하였던 서원으로 유명하다.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령과 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서원이 파손되었지만 복원된 건물과 터만 남아 있는 서원지 등의 흔적을 통해 지방사회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해 오면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끌고 있는 서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의미를 새롭게 한다는 취지에서 발간된 이 책의 내용은 서원의 설립 배경부터 유생 복식의 정제와 심의(深衣)의 수용 및 의미를 짚고, 시 군별 서원 및 서원지에 대한 위치와 창건 및 사액연도, 제향 인물 등을 소상하게 적고 있다.

● 京畿道 書院總覽 上



●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발행
우리나라 토지제도인 양전(量田)시료의 검토와 함흥차사 설화의 역사성 재검토, 한국의 화교유입 역사와 현황 등을 수록한 '화교 네트워크와 경인권 향만을 활용한 환황해 동아시아 해상무역로 구축과 전망' 등 두친 미군 재배치에 따른 공여지(供與地)의 활용방안, 부천지역의 민중운동사의 개발, 신라가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달성한 매소성 전투에 대한 내용 분석을 비롯해서 삼국시대 이후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어 온 안산 지역의 성태산성(城臺山城)과 석곡역(石谷驛)의 역사적 재발견 등에 대한 연구보고를 게재하고 있다.

● 사진으로 보는 종로의 역사문화



● 종로문화원 발행
많은 역사문화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는 종로지역은 골목이나 거리 마을 곳곳이 선조들의 손길과 숨결이 배어 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도시 발전과 시대의 변화로 이러한 역사 문화유적들이 훼손되고 거리와 골목의 모습도 변했다. 종로문화원에서는 서울시에서 펴낸 서울관련 근·현대 민족사진첩과 동아일보사 등에서 만든 '사진으로 본 한국 100년' 등 기존 자료들을 발췌하여 '종로'라는 향토사적 관점에서 재정리하고 편집해서 발간하였다.

● 용산 속의 외국문화



● 용산문화원 발행
용산지역은 남산과 한강을 끼고 있어 오랜 세월 군사적 요충지이며 교통의 중심지로서 외국인의 거주역사가 깊어오면서 다른 지방에 비해 독특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 미8군과 26개국 대사관저 등이 위치하고 있는 용산은 이촌동 일본인 거주지, 한남동 독일인 거주지와 이슬람 성지, 그리고 다국적 거리와 이태원 쇼핑거리 등 다양한 국적의 문화를 살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외국군대 주둔의 역사와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해 본 새로운 문화 창출, PX경제, 새로운 주거문화, 이태원 유흥가 등으로 이어지는 용산 미군기지는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미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따라서 외국문화 유입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용산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이다.

신간소개

● 國譯 高麗名臣傳 (下)



● 성남문화원 발행
2004년에 '고려명신전' 상권을 국역 출간한데 이어 이번에 발간한 하권에는 고려의 명신과 도학자·충신·열녀·일민 등의 행적을 수록한 '고려명신전'은 조선 후기의 정치학자이며 문장가로 의령남씨의 세거지인 성남이 배출한 금릉 남공철(金陵 南公轍) 선생의 저서기운데 하나이다. 금릉 남공철 선생은 고려 5백여 년의 역사 중에서 후세에 귀감이 될 명신과 도학자 등을 포함한 효와 의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한 이름 없는 사람들이 행적까지도 명신전에 담아 놓았으나 본문이 한문으로 쓰여 있어 이를 백남옥 교수(동서울대)와 신안식 교수(건국대)가 역주하고 홍순목 선생(한석봉기념사업회 전문위원)의 감수로 원문의 내용과 사실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전거를 들고 세주를 달아 놓음으로써 고려사를 연구하는데 이해를 돕고 있다.

● 城南 金石文大觀 續篇



● 성남문화원 발행
2003년도부터 성남시 일원에 있는 신도비와 묘갈, 국가지정문화재, 도·지방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분야별로 조사 연구하여 신도비 12기, 묘갈 16기, 묘표 19기, 사적비 4기, 묘지석 4기 등 도합 64기의 기록을 한글로 번역, 사진과 탁본을 함께 편집하고 나머지 107기는 '미채태금석문일람'이라고 하여 부록으로 발간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선별해서 속편을 간행하였다.

● 부천의 궁시(弓矢)문화



● 부천문화원 발행
고구려의 활 제작 전통을 이어온 맥궁(楛弓)이 부천궁방에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弓矢匠)인 김박영 선생이 국궁의 맥을 살려오고 있다. 활쏘기는 고조선시대부터 사냥과 전쟁에 대비하여 대중화된 무예로 권장되어 왔으나 갑오경장 이후 신식무기의 등장으로 인해 활쏘기는 쇠퇴했고 일제의 우리 전통문화 말살정책에 의해 사풍(射風)이 사라질 뻔했던 때도 있었다. 이번 중보판에서는 한국 활의 역사적 고찰과 제작과정과 관리방법, 활쏘기의 마음가짐과 예절, 부천활박물관을 위시해서 전국 국궁장 등을 자세히 소개해 놓았다.

● 청원 계원마을



● 청원문화원 발행
1914년 행정구역의 통폐합으로 계당리와 두원리의 이름을 딴 계원마을은 아직도 농경생활의 전통과 풍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문익면에 있는 두루봉 동굴과 세계 최고(鐵古)임이 증명된 옥산 소로리 법씨 등 선사시대부터의 문화유산을 간직해온 계원마을의 변천사와 생활풍속의 변천을 통해 어제와 오늘을 비교 조명해 놓았다.

● 문화정책개론



● 지은이:가와무라 쓰네아키 외/옮긴이:이흥재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의식과 가치관이 다양해 지듯이, 문화재에 대한 의식과 대응 방식도 바뀌어야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은 보다 적극적인 문화유산 개념에 접근하면서 문화재의 범위를 '유형'에서 '무형'으로, 나아가 민속자료와 기념물, 미 발굴된 자료, 지역까지도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에서 인식한다. 문화재를 '열린' 공간 속에서 모두가 느끼고 공감하는 대상으로 인식해나가기 위해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한 유형문화재의 계승 뿐 아니라, 전통예능과 민속예능의 무형문화재를 위한 공개활동 등의 해외 사례들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역자인 이흥재 선생은 이 책이 비록 일본인들의 저술이고 주로 그들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 인물로 읽는강원문화사



● 전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 발행
전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와 강원도민일보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지난 2000년부터 강원도민일보에 연재됐던 '이 달의 자랑스런 강원문화인물'에 관한 현지 취재기사, 도내 문화원장들의 기고와 함께 인물 유적지를 쉽게 탐방할 수 있도록 악도와 교통편, 전화번호 등 탐방정보를 세심하게 곁들여 놓고 있다. 그동안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교과서적으로만 접해 왔던 선현들의 유적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국학, 문학, 미술, 교육, 언론, 종교, 문화일반, 충의지사, 구국민병, 독립운동, 국방외교, 향토지식인, 정치관료 등 82명의 인물을 부문별로 정리해서 수록해 놓았다.

● 慶南地域文化院 郷土誌總覽



● 전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회 발행
지금까지 발행했던 향토사료 등 각종 발간물을 정리하고 여러 고전을 영인하거나 번역하여 출간하게 된 이 총람은 경남도내의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문헌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각종 발간물의 목록과 필자들을 소개하면서 문화원의 연혁과 조직현황, 주요 사업실적 등을 지역 문화원별로 소개함으로써 옛 어른들의 충효정신, 근검절약·상부상조·공동체 정신이 역사와 문화 안에서 융해되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聞慶의 金石文 II



● 문경문화원 발행
2003년에 발간한 '문경의 금석문 1'에 이어 누락된 자료와 근래에 세워진 비문과 표석 등 문경시 일원에 펼쳐 있는 관계 자료와 사진, 해설과 역문을 붙여 2읍(문경, 기은) 7면(영순, 신앙, 호계, 산북, 동로, 마성, 농암) 1동(점촌)에 산재해 있는 구역별 묘표와 표석, 마을 유래비 등 총 748개를 수록해 놓았다.

신간 소개

● 안동,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을 찾아서



● 안동문화원 발행

유교의 고장 안동은 발길 닿는 곳마다 명현 거유의 발자취가 깊이 새겨져 있는 곳으로 '꼭임지언정 휘지 않는 선비 정신의 분향' 담겨 서원과 문중 종택, 학교, 서당, 고택, 정자를 비롯해서 각 성씨별로 증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적과 전적, 유물 등 역사의 현장을 성씨와 유적지 등에 따라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 무주의 구비설화와 민요



● 문주문화원 발행

1984년도부터 2005년까지 20여년에 걸쳐 많은 대학생들이 직접 마을마다 제보자를 찾아가 조사하는 방식으로 상·중·하권(상관·무주읍·부남면·중권·무풍면·설천면, 하권·안성면·적상면)에 각각 마을별 설화와 민요를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수집해서 자료를 마련한 구비전승에 의한 책자이다.

● 楊平人物誌(上)



● 양평문화원 발행

고려시대부터 조선조, 광복 전후로 양평 출생 및 양평에서 우거했거나 모가 있는 역사적 인물, 각 성씨 입향조, 현감, 군수이상 경력자, 효자, 열녀, 충신, 애국지사, 항일 독립운동가 등의 인물을 강씨에서 흥씨에 이르는 40여 성씨 600여명의 행적을 발굴 수록해 놓았다.

● 파주문화재대관



● 파주문화원 발행

조선 16대 왕 인조와 인열왕후 한씨를 합장한 장릉, 파주 삼릉(공릉, 순릉, 영릉)과 윤관 장군 묘, 오두산성, 소령원, 가월리·주월리 구석기 유적을 비롯해서 신사임당과 율곡 선생, 황희 선생의 묘, 자운서원, 파산서원, 파주향교 등 국가지정, 경기도 지정, 파주시 지정 및 등록문화재를 500여장의 컬러 사진과 함께 문화재의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소재지, 소유자, 조성시기, 규모, 재료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 아름다운 순창의 문화재



● 순창문화원 발행

주민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순창은 주곡인 벼농사 이외에 고추장과 토종꿀, 적성강의 은어, 밥, 매실 등이 특산물로 손꼽힌다. 이러한 순창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고려 공민왕 4년 양이시(楊以時)가 동진 사과에, 그 아들 양수생(楊首生)이 우왕 2년에 문과 을과에 각각 급제하여 받은 합격증서인 홍패(紅牌)를 비롯해서 설씨부인 권선문첩과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개고하여 합편한 것으로 월인석보 등 3종의 보물과 중요 민속자료, 전라북도지정 유형·무형문화재 민속자료, 기념물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 南濟州의 文化遺産



● 남제주문화원 발행

남제주 지역 5개 읍면(대정·남원·성산읍, 안덕·표선면) 76개 부락을 대상으로 설촌유래, 지명유래, 전설, 백중·귀표·낙인 등의 우마에 관한 풍속과 상여집, 문화재, 생활환경과 특산물을 비롯해서 각 읍면단위로 고려 및 조선조, 태평양전쟁, 4·3사건, 한국전쟁으로 구분한 전쟁 및 사건 유적과 문화유산으로서의 제주어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주어, 종교, 민간 신앙, 속담, 민요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 江華



● 강화문화관 발행

1948년 5월 30일 강화문화원의 전신인 강화문화관에서 발행한 '江華'의 권두언에는 '본지 춘절호는 강화의 봄의 상징이다! 조국과 민족이 가혹한 일제 기반(異難)에서 해방됨과 따라 청사에 봄이 오도다. 혹자는 현금의 모진 민생난을 탄하여 춘래불사춘이라 할지나 이는 이른 봄 쌀쌀한 찬바람에 지나지 아니한다. 확실히 봄이 오도다. 만상이 환희함이며 정열의 격발이여 춘광은 보편 되도다.' 라고 적혀 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5월 30일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7월 17일 헌법 제정과 함께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그 당시, 지금부터 59년 전에 문화집지인 '江華'가 발간되었다. 권두언의 후단을 다시 소개하면 '지방문화를 창조할 봄이다! 농사꾼이 씨를 뿌리는 봄이다! 지방문화 수립의 선구가 되고 거화(炬火)가 되며 도시문화에 용감히 도전하려 한다. 인종에서 해방된 봄은 사지를 활갯짓하려 한다. 길게 가지게 펴고 새 공기를 흡수하고 맑은 눈동자로 앞을 바라보라 이에 지침이 되고 반려가 되려고 하는 것이 본지의 사명이다. 여러분의 봄! 이 책의 봄! 江華의 문화의 꽃이 만발하고 향기가 유유히 이 봄이 되어지이다.'

조국 독립과 함께 정부를 수립하느라 여수선했던 그 시절에 지방문화 창조의 가치를 높이 들고 문화운동에 앞장 선 강화문화관 발행 '江華'의 관계자와 필진 여러분의 향토사랑 정신에 감명이 깊다.

연합회 자료실 개관

작년 10월, 드디어 연합회 7층에 자료실이 생겼다. 지금까지 연합회에서 모아온 다양한 자료를 일정한 체계로 분류·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동안 각 지역 문화원에서 보내준 소중한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사무실 한쪽에 수북하게 쌓아 놓아 늘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늦게나마 자료실이 생겨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연합회 자료실에는 연합회의 역사를 말해주듯 다양한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다. 몇 십년 동안 상자 안에 보관되어 온 오래된 자료도 있고, 누군가가 읽다 연합회에 두고 갔을 것으로 보이는 소설책과 시집 등의 문학 관련 자료도 있다. 물론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연합회에서 발간한 자료와 지역과 관련된 군(시)지, 설화집, 보고서 등이다. 지역 관련 자료들은 각 지역의 문화원이나 향토사 연구회 등에서 발간한 것인데, 이들 자료 중에는 일반 도서관이나 자료실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상당수 있다.



연합회 자료실이 작년에서야 문을 열고, 지금도 자료를 정리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자료실을 개방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가까운 시일 내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계획이지만, 자료를 일반인들에게 대여해 주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연합회를 운영하면서 자료실까지 생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지역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소홀히 하였다라는 점은 연합회가 안고 가야 할 문제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과오를 거울삼아 자료실 개방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면, 앞으로 연합회 자료실은 지역문화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자료실 위치 : 연합회 제2사무소
자료실 문의 : 서종원 02)704-4335

제15차 전국문화원 사무국장 연수



지난 3월 16일부터 17일 이틀간 사무국장 연수가 있었다.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한 연수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186명이 참여했다. 사무국장 이외에도 문화관광부 성남기 문화정책 국장과 부산광역시 이권상 행정부시장, 한국문화원연합회 정연구 부산시지회장, 그리고 각 지역 다수의 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열렸다.



사무국장의 역할 증진과 지방간의 정보교류의 차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특강, 사례발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강으로는 극작가이자 예술원 회원인 신봉승 선생을 초청해 '청년 세종의 리더십' 과 문화관광부 전영웅 지역문화팀장의 '문화관광부 문화정책 방향', 한국리더십센터의 김정섭 회장의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의 리더십' 으로 진행되었다. 전문가의 초청특강으로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하고 지방문화원의 발전방향에 관해 도움을 주었다.



식사 후 사례발표로 인천남구학산문화원 최혜은 사무국장의 '옥자의 하루' 와 서산문화원 한기홍 사무국장의 '서산문화원 운영사례' 그리고 함안문화원 추도호 사무국장의 '문화원 신청사 건립사례' 로 문화원 실제 사례에 대해 나누

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문화원 발전 성공사례발표로 참석자들에게 지방문화원 청사진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지방문화원의 사무국 책임자인 사무국장의 책임의식을 되새기며 사업추진의 제고 방안을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이후에는 마포문화원의 주부노래가요반에서 원미연, 김광숙 회원이 가요공연을 했다. 노래교실은 문화원 운영 프로그램 중 성공적으로 정착된 프로그램으로 공연 관람의 기회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활성화를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둘째 날에는 행정자치부 김기봉 민간협력팀장의 '주민서비스 전략 체계 혁신교육' 과 연합회 2007년도 복권기금 사업설명회를 갖고 질의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무국장 연수를 통하여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에서 바라본 지방문화원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해볼 수 있었으며 문화원 담당 시도공무원 참석으로 행정과 민간문화단체간 협력 분위기를 강화했다. 지방 문화원간 실무와 의견을 나누며 각 문화원의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었다. 짧은 연수 기간으로 지역문화탐방이나 분임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문화원 소식>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된지 12년 만에 지방문화원의 기능 및 역할 제고를 위한 개정 법률안이 지난 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1월 30일 공포와 함께 지난 3월 1일 동법 시행령이 각각 공포됨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문화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흥길 의원과 노용래 의원 등 43인의 발의로 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문화원연합회 시·도지회 설치’ ‘시군구별 1지방문화원 설치 규정 신설’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특정의 지방문화원 별도 육성 근거 마련’ ‘지방문화원 사업 중 향토사 발굴 추가’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신설’ ‘전국문화원연합회를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명칭 변경’ ‘연합회에 지방문화원 지도 기능 추가’ 등이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전문은 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www.kccf.or.kr)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부설 문화동력연구소

2007 연구·자문위원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자체 연구 및 정책개발 기능을 비롯해서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자문 및 연합회 용역사업을 의뢰하기 위해 부설 문화동력

연구소의 2007년 연구·자문위원으로 13명을 위촉하였으며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시·도지회 활성화 방안과 지방문화원 사회교육 시설로서의 기능강화 방안 등을 중점 연구할 계획이다.(위원 명단 가나다 순)

강은홍(노인복지사) / 곽효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 김경섭(한국리더십센터 소장) / 김기상(송파문화원 사무국장) / 김옥분(작가) / 박덕규(단국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 박종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위원장) / 유경(사회복지사) / 유재현(상상공장 대표) / 이종인(한국문화행정연구소장) / 임연철(동아일보 문화사업국장) / 홍승찬(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강북문화원 3·1절 기념행사

88주년 3·1절을 맞아 강북문화원에서는 ‘제4회 봉황각 3·1독립운동’의 재현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앞서 도선사에서 타종식을 갖고 길놀이 및 태극기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서울시 지정 문화재 2호인 봉황각에서 치러진 이번 행사는 마당극을 비롯한 공연행사와 3·1독립운동 전개 과정 사진전을 함께 열었다. 대북울림과 무용공연, B-boy 공연 등으로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흥겨운 축제의 장이 되었다.

금산문화원 달맞이 행사

농업과 관련된 풍요를 상징하는 달을 맞이하기 위해 지난 3월 2일에서 3일에 걸쳐 달맞이 행사를

가졌다. 2일 달집쌓기와 사랑나무 언덕 달불달기를 시작으로 하여 3일에는 화합의 축원마당을 열었다. 유등불놀이 체험과 부속물다리 건너기 체험, 달산 그리기 체험과 같은 행사를 열어 참여를 도모했다. 4일에는 달맞이 놀이마당을 열어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 체험행사를 열었다.

수원문화원 대보름 민속한마당

수원문화원은 2007년 새해 첫 사업으로 ‘정해년 대보름 민속 한마당’을 열었다. 지난 3월 3일 정오부터 팔달문 시장 영동 시냇길에서 열린 이 행사는 민속놀이 체험을 비롯해 부럼깨기 더위팔기 등의 나눔 행사를 했다. 풍물, 민요, 한국무용, 태권 무용단 등의 공연으로 볼거리를 마련했다. 또한 수원지역 민속행사를 재현하여 길놀이 및 지신밟기를 하며 ‘화홍문 답교놀이’ 시간도 가졌다.

성남문화원 3·1만세 운동 기념식과 대보름 축제

성남문화원이 주최하고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3·1만세 운동 기념식이 지난 3월 1일에 열렸다. 성남지역의 3,000여 시위군중의 참여로 이루어졌던 3·1운동의 정신과 애국선열의 항일운동을 기리며 개최되었다. 기념식은 풍물굿패 ‘살매’의 ‘경기 옷다리 농악’을 시작으로 추모시 낭독, 추모 공연 등으로 꾸며졌다.

한편,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성남시 정월대보름축제가 지난 3월 4일 분당구청 앞 문화의 거리와 잔디광장에서 개최되었다. 널뛰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었으며 파전 동동주 등을 맛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민속대향전으로 연날리기, 옷놀이, 팽이치기, 널뛰기, 제기차기 등의 다양한 행사도 마련해 시민의 참여를 도모했다.

증평문화원 대보름 민속놀이



민족고유의 명절, 정월대보름 민속놀이가 전통문화를 수호하고 계승, 발전시키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지난 3월 3일 토요일

<문화원 소식>

오후 2시부터 보강천 체육공원에서 열렸다. 증평 문화원 주최하고 행사추진위원회, 각급 사회단체, 수살제재현추진위원회가 주관, 증평군, 증평소방서, 괴산경찰서, 괴산 교육청, 증평예총이 후원한 이 행사는 수살제를 중심으로 대보름날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 였다.

안동문화원 대보름 달맞이



안동문화원에서는 한 해의 안녕과 소원을 비는 행사로 지난 3월 4일 낙동강변 축제장에서 '정해년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마련했다. 지신밟기 및 윷놀이대회, 팔씨름대회 등의 민속놀이 체험행사로 그 시작을 열고 6시부터는 소원 쓰기, 기원제 등을 내용으로 한 달집태우기 행사도 주관했다. 또한 떡매치기와 복조리 나눠주기 등 다채로운 음식행사도 함께 열었다.

달성문화원 달맞이 기원제

달성문화원은 전통문화를 보존 전승하고 군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8회 정월대보름 달

맞이 기원제 및 노래자랑을 열었다. 지난 3월 4일 논공읍 북리에 소재한 달성군민 운동장에서 코미디언 이용식, 배일호 등을 초청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통영문화원 통영 전통 연날리기 대회

정해년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제25회 시장기타기 통영 전통 연날리기 및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3월 4일 도남동 트리아슬론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우천으로 인해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계자의 도움으로 덕분에 무리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행사 진행은 18개 읍·면·동 선수들이 출전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곡성문화원 곡성여성연극단 창단식

곡성문화원에서 육성한 11개 읍면 주부들로 구성된 '곡성여성연극단'이 지난 2월 23일 곡성군민회관 대강당에서 창단식 및 창단 공연을 가졌다.

춘천문화원 정월대보름 축제

지난 3월 4일 '삶이 풍요로운 경제중심도시, 춘천'이라는 주제로 의암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정월대보름 축제가 열렸다. 관광객, 시민, 행사 참가자 등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풍물길놀이, 널뛰기, 윷놀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굴렁쇠 굴리기, 2014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기원 연 만들어 날리기 등의 행사를 가졌다. 또한 여러 공연 행사와 달맞이 행사로 즐거운 축제의 시간을 만들었다.

인천 남동문화원 주소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4동 1256-1 향군회관 빌딩 4층 우)405-839

제9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안내

- 원서교부 : 2007. 3. 16 ~ 6. 12-홈페이지 www.sgcc.or.kr에서 출품원서 다운 사용
- 작품부문 : 한국화(구상, 비구상), 양화(구상, 비구상, 수채화), 서예(한글, 한문, 문인화)
- 출품자격 : 18세 이상의 여성
- 작품접수 : 2007. 6. 11 ~ 6. 12(2일간)
- 접수처 : 대전 서구문화원 (1점당 출품료 : 30,000원)
- 심사 : 2007. 6. 14
- 심사결과 발표 : 2007. 6. 15(대전 서구문화원 사무국)
- 시상 : 2007. 7. 13(금) 15:00 / 대전 연정국악문화회관 소강당
 - 대상 1명 : 상장 및 부상 400만원/매입상금
 - 부문별 최우수상 각 1명 : 상장 및 부상 150만원/매입상금
 - 부문별 우수상 각 1명 : 상장 및 부상 50만원/매입상금
 - 특선 : 상장(부문별 약간명)
 - 입선 : 상장(부문별 약간명)
- 작품전시 : 2007. 7. 13 ~ 7. 20(8일간) / 대전 연정국악문화회관 소강당
- 주최 및 주관 : 대전광역시 서구 / 대전 서구

문화원

- 후원 : 문화관광부/대전광역시/한국미협 대전시지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서구문화원 사무국에 문의 바람 (042) 488-5474/9596 ☎

양중해 제주지회장 별세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자치도지회장 현곡(玄谷) 양중해(梁重海) 선생이 지난 4월 4일 오후 4시 55분 노환으로 별세했다.(향년 81세)

제주도문화예술인장(위원장 홍순만)으로 거행된 영결식이 4월 6일(일) 오전 8시 30분 제주해변공연장 야외무대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과 한국문화원연합회 권용태 회장 및 유족 친지 등 많은 조문객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시 '떠나가는 배'로 널리 알려진 고 현곡 선생은 30여 년 간 제주대에서 후진 양성을 해 오셨으며 1995년부터 제주문화원장을 시작으로 제주도지회장을 맡아 지방문화원 발전에 앞장서 왔다.

장지는 제주시 월평동 가족공동묘지에 마련되었으며 유족으로는 미망인 김진열 여사와 3남 1녀의 자녀와 며느리를 비롯하여 7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있다.

<문화원 원장 동정>

대전광역시지회장 조성남 씨



한국문화원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는 지난 3월 27일 유성문화원 3층 회의실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열고 조성남(趙聖南 53세) 중구문화원장을 전원 일치로 제7대 지회장에 선임했다. 조성남 지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문화가 가장 중요한 시대임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문화원 위상 정립을 위해 대전시 5개 문화원의 힘을 결집하자고 강조하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운동을 통해 대전이 문화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전고와 충남대 철학과를 졸업한 조성남 지회장은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과 대전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대전일보와 중도일보 경제부, 문화부, 사회부장 및 논설위원, 기획실장 겸 논설실장으로 언론계에 종사해 왔으며 대전시체육회 이사, 대전위협협회 이사, 대전·충남행정학회 이사, 중도일보 편집국장을 거쳐 2003년부터 대전 중구문화원장과 중도일보 주필로 활동해 오고 있다.

충청남도지회장 박응진 씨 재선임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는 지난 2월 12일 대전시 유성구 소재 아드리아 호텔 2층 수라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박응진(朴應辰 66세) 현 지회장을 전원일치로 재선임하였다. 논산문화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응진 지회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논산청년회

의소 회장, 대전지검 논산지청 범죄예방협의회장, 논산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등을 맡아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오고 있다.

광진문화원장 이성전 씨



광진문화원은 지난 1월 30일 문화원 공연장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성전(李成典 70세)씨를 제6대 원장으로 선임하고 2월 27일 중곡4동 소재 백악관웨딩부페에서 내외 귀빈과 2백여 명의 문화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임 이 원장은 '광진구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광진구 문화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문화원 확장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희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전국전자연합회 제10대 회장과 광진구의회 제1·2대 의장을 역임하고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한 바 있는 이 원장은 현재 삼화가전판매(주) 대표이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 강북문화원장 정수인 씨



서울 강북문화원은 지난 3월 13일 서울 강북구 소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3층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수인(鄭洙寅 55세)씨를 제4대 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정 원장은 수락 인사를 통해 문화를 사랑하고 문화원과 문화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노력해 나갈 것과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광운대 사회개발원 대학원을 나온 정 원장은 강북구 생활체육협회 감사와 강북구체육회 상임이사, 보육시설 대표이사 등으로 활동해 왔다.

대전 서구문화원장 박세규 씨 재선임



대전 서구문화원은 지난 2월 22일 오전 11시 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 4대 원장에 박세규(朴世奎 64세) 현 원장을 재선임하였다. 단독추대로 재선임된 박원장은 중앙대 교육학과를 중퇴하고 충남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제3대 서구의회 의원과 내무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정기총회 직후 문화원 임원과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취임식에서 박원장은 많은 회원들의 협조와 성원에 감사한다고 전하면서 더불어 앞으로 '활기찬 First 서구문화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광명문화원장 안병식 씨



광명문화원장으로 안병식(安秉植)씨가 2007년 1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선임되었다. 안원장은 중앙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광명시 초대 시의원과 광명시 약사회 회장, 광명시 테니스 협회 회장, 국제모타리 3690지구 총재, 광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광명문화원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약국을 경영하고 있다. 2월 23일 광명시청 대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안원장은 문화원이 나아갈 방향과 열린 문화공

간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시민의 참여를 극대화시킬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취임식에는 문화원 회원과 이사, 역대 원장, 시의원, 전재희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남양주문화원장 이창수 씨



남양주문화원은 지난 1월 25일 문화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2명의 입후보자가 경선한 끝에 이창수(李昌秀 53세)씨가 제8대 원장으로 선임되었다.

3월 22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관내 기관 단체장을 비롯해서 문화원 회원 및 가족 친지 등 3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취임식을 행한 자리에서 신임 이 원장은 남양주 문화유적에 대한 역사 문화적 가치의 재인식과 시민 참여도 제고 문제를 비롯해서 임기 내 문화원사 마련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방송통신대 농학과(농학사)와 건국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을 졸업한 이 원장은 남양주문화원 부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남양주시체육회 이사와 성주건설(주) 대표이사로 활동해 오고 있다.

시흥문화원장 정상중 씨



시흥문화원은 지난 1월 25일 문화원 2층 다목적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상중(鄭常鍾 56세)씨를 제5대 원장으로 선임하고 3월 28일 문화원 3층 강당에서 관내 주요 기관 단체장과 경기도내 다수 문화원장들이 참석

<문화원 원장 동정>

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진 자리에서 지역문화 유산의 보존 전승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조체계를 강구해 나갈 것과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문화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임 정 원장은 한양대를 졸업하고 주식회사 동성토건 대표이사과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약했으며 현재는 시흥시 생활체육사격연맹 회장 직을 맡고 있다.

용인문화원장 이종민 씨



용인문화원은 지난 2월 15일 용인시청 3층 철쭉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2명의 입후보자가 경선한 가운데 75%를 득표한 이종민(李鍾敏 63세) 씨가 제14대 원장으로 당선되었다.

3월 20일 오전 11시 용인시청 문화예술원에서 관내 기관장과 사회단체장 및 도내 문화원장들과 많은 문화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용인을 만들기 위해 '용인탑' 설치를 비롯해서 봉화터와 할미성 복원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모든 문화단체가 참가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정보 교류와 의견 취합을 제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 원장은 용인군 수지면장과 용인제일병원 이사장을 지냈으며, 8년간 용인문화원 부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희성웨딩문화원 이사장과 베트남참전 전우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평 문화원장 장재찬 씨

양평문화원은 지난 2월 22일 양평군민회관 대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 8대 원장으로 장재찬(張在燦 73세)씨를 선임했다.

2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55%를 득표함으로써 당선된 장 원장은 3월 27일 같은 장소에서 관내 기관 단체장 및 경기도내 문화원장들과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취임식에서 '양평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원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문화원 창립 30주년을 맞아 문화원 원사건립에 힘쓸 것'임을 피력하였다.

신임 장 원장은 경희대 한의학과와 연세대 보건대학원을 각각 졸업하고 연세대 의대 공중보건의 수료, 일본 도호대 대학원 의학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양평군 한의사회장과 양평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동해문화원장 김형순 씨 재선임



동해문화원은 지난 3월 9일 문화원 3층 강당에서 제7대 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김형순(金炯淳 69세) 현 원장을 재선임하였다.

169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100표를 득표한 김 원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지역축제의 민간위탁과 무형문화재 발굴10년계획을 비롯하여 각종 문화예술교육사업 및 실버문화학교 등 향토사 연구와 다양한 문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원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임을 피력했다.

35년간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바 있는 김 원

장은 동해시 총무국장과 민예총 동해시지부장을 거쳐 동해무릉제위원회 위원장과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홍천문화원 허기영 씨



홍천문화원은 지난 2006년 11월 23일, 문화원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2명의 입후보 중 70%의 득표율을 획득한 허기영(許驥寧 66세)씨가 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2006년 12월 18일 홍천종합문화복지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국회의원, 군수, 교육장, 각 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허원장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계승과 보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사범학교 출신인 허원장은 초등학교 교장을 퇴임하고 홍천군 교원단체연합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강원도 연합회 부회장을 지냈다.

진천문화원장 남명수 씨



진천문화원은 지난 1월 30일 문화원 공연장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2명의 입후보자가 경선한 결과 75%를 득표한 남명수(南明秀)씨가 제 12대 원장으로 선임되었다. 2월

22일 관계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등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신임 남원장은 진천 군민의 생활과 함께 하는 미래지향적 생거진천(生居鎭川)이 되도록 정성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

면서 문화강좌의 질을 개선하고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피력했다. 남원장은 진천농공고를 졸업하고 진천군청과 의회 사무과장을 거쳐 진천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읍문화원장 정창환 씨



지난 1월 17일 문화원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 15대 정읍문화원장으로 단독 출마한 정창환(鄭昌煥 64세) 씨가 새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정원장은 전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예재학원 이사장, 한국미술협회 정읍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별정우체국중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정읍임페리얼웨딩홀에서 정읍 시장, 정읍교육장 등 관내 기관 단체장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새로 선임된 정원장은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옛것을 발굴해 현대에 맞춰나가는 자세를 갖추 것을 다짐했다.

고흥문화원장 송문석 씨



제 7대 고흥문화원장으로 1월 30일 정기총회에서 송문석(宋文錫 64세)씨가 단독출마로 선임되었다. 송원장은 고흥대서중학교 행정실장을 지낸 바 있으며 고흥문화원 동강면 이사직을 역임했다. 송원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육성을 다짐하며 다채로운 문화로 발전에 발전을 더하는 고흥이 될 것을 다짐했다.

<문화원 원장 동정>

장흥문화원장 김기홍 씨



장흥문화원은 지난 2월 27일에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 11대 원장에 김기홍(金基洪 68세) 현 원장이 선임되었다. 광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한 김원장은 3월 27일 장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장흥군수와 장흥군의회 의장 및 기관단체장을 비롯하여 많은 문화원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김원장은 장흥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아름다운 정신문화 함양과 새 문화 창달을 도모하겠다는 취임사를 밝혔다.

청송문화원장 김희목 씨



제 6대 청송문화원장에 김희목(金熙睦 77세)씨가 선임되었다. 청송문화원 부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원장은 유도회 총본부 상임의원과 성군관 전임 및 자문위원을 지낸바 있다. 또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한 바 있는 김원장은 지난 2월 26일 청송군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예천문화원장 김종배 씨

예천문화원은 지난 3월 20일 예천군문화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사회 추천으로 단독 입후보한 김종배(金鍾培 68세)씨를 제11대 원장으로 선임했다.

선임 당일 관내 주요 인사 및 3백여 명의 문화



가족이 참석하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신임 김 원장은 공약사항으로 문화원 단독 원사 건립, 문화강좌의 질적 향상, 지역 문화단체 후원, 문화원 지부의 활성화 등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원장은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안동 학산초등학교 교사를 거쳐 대창중·고 교장으로 교직에 몸담아 왔으며 금년부터 가락 예천군중친화장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대전 중구문화원장에 조성남 씨 재선임



대전 중구문화원은 지난 2월 24일 문화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15대 원장에 현 원장인 조성남(趙聖南 53세)씨를 만장일치로 재추대하였다.

조 원장은 대전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중도일보 편집국장과 대전발전연구원 자문위원, 민주평통 대전중구협의회 부회장, 한국공공행정학회 홍보이사 등으로 활동해 왔다. 재추대를 받은 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원이 우여곡절 끝에 금년 가을이면 대흥동으로 원사를 옮기면서 변신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의 원도심 활성화정책과도 직결되어 있어 우리 중구문화원이 지역문화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헌신할 것임을 다짐했다. ☎

제2회 고령관광 전국사진공모전

>> 접수기간 : 2007. 11. 20일(화) 도착분에 한함

촬영대상 | 고령군 관내 모든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미발표작

- 자연경관 : 고령의 산, 강, 호수, 계곡, 농경지 등
- 체험관광 : 토기제작, 판각, 천연염색, 딸기수확 등 각종 체험관광(대가야체험축제 행사장면 등)
- 문화유적 : 문화재, 사찰, 전통공예, 세시풍속 등
- 생활환경 : 산업현장, 농경생활, 재래시장풍경, 향토음식, 특산물재배
- 여가활동 : 조깅, 낚시, 축구, 테니스, 등산 등 스포츠 레저

촬영기간 | 연중

심사 및 발표 |

- 일시 및 장소 : 2007. 11. 23(금) 고령군청 3층회의실
- 발표일 : 2007. 11. 26(월) <http://www.goryeong.go.kr>

시상 및 전시회 개최 | 2007년 12월 초순 예정 (추후통보)

응모자격 | 제한없음

작품규격 | 규칙위반은 심사에서 제외

- 11"×14" 칼라, 흑백 (패널 불요) • 디지털사진도 출품가능(합성 제외)

출품수량 | 1인 5작품 이내

출품료 | 없음

접수처 | 717-800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192번지 고령문화원 ☎054-954-2347

시상내용 |

구분	금상	은상	동상	각주	입선
작품수	1점	2점	3점	5점	50점
상금	300만원	각 100만원	각 50만원	각 20만원	각 10만원

기타 |

1.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주최측에 귀속하고 심사결과 후 입선작 이상은 7일 이내에 원판필름 및 원본CD를 주최측에 제출해야 함(미 제출시는 상권을 취소함)
2. 디지털사진은 500만화소 이상으로 촬영
3. 컴퓨터그래픽 합성사진, 동일작품으로 입상, 입선된 경우 상권을 취소함
4. 낙선작은 개별 반송함
5. 출품표에 촬영장소, 촬영일시, 주소, 우편번호를 정확히 명기할 것

문의 | 고령문화원 ☎054) 954-2347

대가야사진연구회 회장 011-528-0362, 총무간사 016-519-0011

주최 / 고령군 주관 / 고령문화원 대가야사진연구회